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6호 2012년 4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올해의 행사 등 동창회 사업 재점검

알래스카 크루즈를 겸한 제21차 평의원 회의 Fund Raising 위한 4대 행사 준비 등 논의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중·상대 59)가 올해 행사를 비롯한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3월 26일 미주 동창회 사무실(1225 W. 190 St. Gardena CA)에서 가진 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것이다.

성주경(상대 68) 사무총장은 7월 8일부터 15일까지 계획된 알래스카 크루즈에 대한 현황과 올

해의 이벤트에 대해 보고했다.

제21차 평의원 회의를 겸한 이번 알래스카 크루즈에는 지난 3월 26일 현재 총 127명이 참가를 신청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호응을 보이고 있다.

성주경 사무총장은 “평의원 회의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평의원 명단 및 대리자 명단을 확인하고 안전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각 분야별 공로 수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을 관계 인사들이 조속히 함께 해줄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은중 회장은 알래스카 크루즈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에 치하했다.

김은중 회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알래스카 크루즈를 통한 평의원 회의니 만큼 확실한 준비와 평의원 및 평의원 대리자

←미주 동창회 임원진이 올해의 행사 등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왼쪽부터 이경희(문리대) 사업국장, 백옥자(음대) 총무국장, 성주경(상대) 사무총장, 지인수(상대)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김은중(상대) 미주 동창회장, 노명호(공대) 관악후원회 부회장, 이상대(농대) 설의국장.

협의회가 오는 8월 Convention 을 개최하는 데 미주 동창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주 한인 파기협은 회장(이호신 박사)이 동문인데다 이 협회내에 아주 많은 동문들이 가입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등에 대한 숫자 파악을 확실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의 중요한 사업은 이종도(공대 66) Fund Raising 위원장이 이미 지난 3월 ▶Brain Network Workshop ▶사생대회 ▶수학 경시대회 ▶골프대회 등으로 밝힌 바 있다.

Brain Network Workshop은 11월 경, 골프대회는 10~11월, 사생대회와 수학 경시대회는 그 이후에 개최할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노명호(공대 61) 관악후원회 부회장은 “미주 한인 과학기술자

미주 동창회보 지인수(상대 59) 편집위원장은 “새 기획 ‘이달의 초대석’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이 의외로 커 앞으로 이 페이지에 초빙될 동문들에 대한 인선작업을 미리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참석치 못한 김재영 감사와 강호석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미주 발전기금(Million Dollar Fund), 포상위원회, 모교 발전 위원회, 통합 세칙, 재무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 <편집주간>

이 달의 초대석 정구영 박사 · 16~17면

미주 동창회 2012 Alaska Cruise · 23면

커네티컷의 김창수 박사

최고 임상전문의 선정 영예

미드스테이트 메디컬 센터 선정, 지난 3월 14일 시상식 가져

김창수 흉과외과·혈관질환 전문의가 지난 1월 미드스테이트 메디컬 센터(Midstate Medical Center) ‘최우수 임상전문의’로 선정돼 지난 2월 26일 축하 만찬이 자택에서 열렸다.

이 날 김창수 박사 자택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한 장녀 비비안 안과 천지, 동료 의사 등 80여 명이 모여 김 박사의 수상 및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오랫동안 미드스테이트 메디컬 센터 내에서 개업해 많은 진료해 온 김창수 박사는 2년 전 의료임을 중단하고 현재 병원 흉과와 혈관질환 진찰, 그리고 수술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본 병원에서 최우수 임상전문의 표창을 받은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수상자인 김 박사를 위해 지난 3월 14일 리셉션을 열어주기도 했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에 지역사회 병원에서 인정받아 ‘임상전문 의사’라는 명예로운 표창장을



↑김창수 박사 내외(가운데)가 하객들로부터 ‘최고 임상 전문의’ 수상에 대해 축하받고 있다.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님들이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구독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1년 구독료는 75달러입니다. 미주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특별기고

<4.19의거 52주년>불사의 혁명기/ 4.19의거를 회상한다 4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서울대 병원 LA 미주 오피스 건강 세미나

미주 한인 위암 생존율 안국보다 낮아

서울대 병원 LA오피스가 주관하고 제미한인의사협회(KAMA)와 SF 한인회가 후원하는 건강 세미나가 지난 3월 11일 SF 한인회관에서 열려 SF 동포 노인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LA 서울대 병원 미주오피스 애니스 박 운영실장은 이날 서울대 병원 홍보와 검진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어 텍사스테크대 혈액종양내과 과장 겸 암 센터장을 역임한 미국 내과학회 박찬형 박사가 미주 한인의 건강상태와 위암·간암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박찬형 박사는 한국 거주 한인의 위암 생존율이 63.1% 인 반면, 미주 한인 위암 생존율은 37.3%로 현저히 낮으며, 위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형 박사는 "미국 남성암 1위는 전립선암,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인 반면, 한국인은 남녀 공동 1위가 위암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1위 발생암이 아니다보니 위내시경 등의 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한국에 비해 비싸고 어려운 편" 이라고 말했다.

박찬형 박사는 이어 "발병률 1

↑ 지난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병원 미주 오피스 건강 세미나 참석자들이 박찬형 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위인 위암 수술이 발전한 한국은 초기 발견시 위내시경을 통해 무개복 수술도 가능한데,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미국은 검진과 수술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애니스 박 운영실장은 "LA에서는 해마다 두번씩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서울대 병원과 연계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대학교 병원 미주 LA 오피스는 상주 간호사를 통한 건강검진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LIU 교육학과 최혜련 교수

‘올해의 최우수 교육자상’ 수상

몽아일랜드 대학(LIU) 포스트 캠퍼스 교육학과 조교수인 최혜련(사대 82·사진) 박사가 이 대학이 제정한 ‘올해의 최우수 교육자상’ 수상자에 선정돼 지난 4월 2일 LIU 브루클린 캠퍼스에서 수상했다.

최혜련 박사는 LIU 포스트 캠퍼스와 브루클린 캠퍼스에서 해마다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는 수상자 중 한 명에 선정된

것이다.

LIU 대학에는 600명의 교수가 근무중으로 각 캠퍼스에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교수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매년 6명의 최우수 교육자를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고 있다.

최 박사는 모교를 졸업한 뒤 버펄로 뉴욕 주립대학을 거쳐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실리콘 벨리 최원철 박사의 첨단 기술 기기

스탠포드대 의대가 도입해 수업용용

스탠포드대 의대 해부학 교실, 교수와 학생 10여 명이 대형(가로 76cm 세로 213cm) 전자 해부대 주위에 서 있다.

80인치 LCD 화면에 어깨를 다친 여성환자의 해부도가 뜬다. 실물 크기에 3D 입체영상이다.

아이패드(iPad)처럼 화면을 살짝 건드리자 어깨 부위가 순식간

에 확대, 전후좌우 360도 회전도 한다. 화면 한쪽을 살짝 두드리자 근육과 뼈가 사라지고 뒤에 숨어 있던 혈관이 드러난다.

지난 해 5월 이 대학 학보(Inside Stanford Medicine)에 소개된 실제 수업 모습이다. 이 '가상 해부대'는 실리콘벨리의 아나토마지(Anatoma)사가 개발한

‘테이블(Table)’이란 제품이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최원철(44) 박사는 지난 3월 열린 TED콘퍼런스에서 LA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가상 해부대 개발 이유는,

“해부학은 의사들에게 꼭 필요 한데 카데바(Cadaver 연구용 시체) 구하기가 어렵다. 시신 기증과 해부학교실 운영에 연간 50만~100만 달러 든다. 종교적 이유로 시신해부를 금지하는 나라라도 있다. 테이블(대당 6만 달러)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디지털 해부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CT·MRI 등 실제 환자의 이미지를 사용해 1대 1 사이즈로 만들어 너무 리얼해 관객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진짜만은 못하지 않을까,

“진짜보다 나은 점도 있다. 시체는 화학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변형 변색되고 교룡사고 시체는 장기 등이 훼손된다. 반면 ‘테이블’은 완벽한 상태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해부학은 의사가 월사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치의학·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진짜 시체보다 더 도움될 수도 있다.”

“3D이미지 기술로 의료기기 전문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실리콘벨리 첫 직장인 의료기기 회사였다. 집안에 의사가 많은 영향도 있다.”

“의사나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내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난 창업을 원했다. 유학 시절 김종훈 전 유리스시스템즈 대표의 벤처 기업을 성공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최 박사 부친은 부산 백병원 초대 원장을 지낸 고 최하진 박사로 두 형과 동생도 한국과 미국에서 의사다. 최 박사는 모교 공

대(86)를 졸업,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터설계(CAD)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TED=Technology·Entertainment·Desig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매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콘퍼런스가 열리며 각종 첨단 기술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면에서 계속>

김 박사는 지난 1960년 모교 의대 졸업 후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령이 제정한 펠로우십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왔으며 일반의과, 심장 수술과 흉곽외과,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 전문 의사로 일해 왔다. 그후 링컨 병원과 뉴욕에 있는 와이커프 하이츠 병원, 그리고 예일-뉴헤이븐 병원과 유타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광범위한 트레이닝을 받았다.

김 박사는 “캐네티컷 동포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축하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박사는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국제 혈관전문 의사 협회 창립회원으로 지난 18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공로로 마일스톤 어워드(Milestone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



←스탠포드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원철 박사(뒷사진)가 개발한 ‘테이블’을 이용해 해부학 수업을 하고 있다. ‘테이블’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으로 만들어진 환자의 의료사진을 합성해 실물크기 입체 이미지로 보여주는 ‘가상 해부대’다.

시사만평

박준창
(인문대 79·변호사)

축! 특수 법인 서울대학교 2012 년 출범



세계의 명문대학들이 거기 물렸거라.

차 례

3. 46용사에게 더 죄스럽다/ 나무영웅 헌신규 박사를 그리며/ 3월을 보내며
4. <4.19 특별기고>불사의 혁명가/ 4.19 의거를 회상한다
5. <이순신 탄신 467주년>판옥선의 탄생과 역사적 공헌/ Why High Unemployment Level

will Persist?

6. <특집 암>암의 예방, 발병과 치료 문답
7. <특집 암>미국 암 환자 알파벳 몰라도 암 지식은 박사급
8. 벚꽃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 하네
- 9-12. 동문 동정
13. Ariel Set Free/ 초기 이민생활
14. <범창일화>세상은 꼭 정의만 승리하지

않더라/ >동문 시 감상>봄이 다가온다

15. 지역 동창회 소식
- 16-17. <이달의 초대석>정구영 박사
18. 지역 동창회 소식
19. <인류학> 사례들인 사람은 거짓말장이/ <한시감상>이백의 독파경정산
20. <독일여행기> 2라이프지히와 쾰른/ <동문 시 감상>꿈 속을 헤매듯/ 베를레

의 마들렌대 대성당<>

21. 고국 동문 동정
- 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 미주 동창회 Alaska Cruise
- 24-29. 동문 업소록
- 30-32. 동창회 각 지부 회장단 명목/ 편집 후기/ 광고

“46용사에게 더 죄스럽다!”



배인준(문리대 74졸)
동아일보 주필

2년 전 3월 26일 북한 어뢰의 천안함 폭침으로 46용사를 잃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군사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법안을 상정조차 안했다.

그 사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 세계를 위협했다(4월 12일 결국 실패).

북이 핵무기와 그 운반체인 미사일을 착착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에 대준 꼴이 된 좌파 정권의 후예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이들에겐 국가 안보보다 해안 바위가 더 소중한다.

후보 시절 “남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객관 쳐도 좋다”고까지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건설계획을 확정했던 바로 그 기지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 해찬 상임고문은 5년 전인 당시 국무총리와 전임 총리로 노 대통령 못지 않게 제주 기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작년 5월 23일 태극기를 밝고 몇 발짝 걸어 노 전 대통령 추모비에 하얀 꽃을 바쳤는데, 이 때문에 국기(國旗)모독 시비를 불렀다.

한 대표의 행동도 문제지만 그날 초대형 태극기를 서울 한복판 덕수궁 앞 길바닥에 깔아놓고 추모행사를 주도한 세력의 의도부터 짚어 봐야 한다.

종북세력이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땅바닥에 펼쳐놓고 만인의 더러운 구둣발로 짓

밟게 하는 것은 북한 김일성이 태극기를 남한에 ‘매앗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나는 본다.

해방 후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지시를 받으며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자기네 것으로 챙기지 못하고 남측에 안겨준 뼈아픈 실수를 했다.

태극기를 국기로 아끼지 않고, 애국가 대신 이상한 행진곡을 부르는 소위 진보정당 사람들이 18대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바다.

이들은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더욱 약진해 ‘중북 국회’, ‘중북 정권’을 꿈꾸고 있었던 바다. 그 선두에서 활짝 웃고 있는 통합진보당 대표는 북한의 6.25 남침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진보당이 탄핵에 평양까지 가서 북한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은 여성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에 넣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海賊)이라고 부른 여성들도 진보로 분류된다. 이역만리 인도양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인질로 잡힌 삼호 주일호 선원 20여 명을 목숨걸고 구해낸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자신의 아버지·오빠·남동생이라 해도 ‘해적’이란 말을 입에 올릴지 알고 싶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停戰)후 60년간 부분적으로 ‘구멍’이 뚫리긴 했지만 큰 틀에선 안보를 지켜냈다. 그해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미 동맹이 있었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전쟁 억지(抑止)가 가능했다.

우리 국민은 우수하지만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느라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1955년 65달러이던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소득을 2만 달러까지 올려놓은 기적은 자유민

<4월 5일 식목일 칼럼>

나무영웅 헌신규 박사를 그리며



한삼희(사회과대 81졸)
조선일보 논설위원

지난 2003년 당시 고국의 과학기술부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 14명을 선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에 참여한 김근배 교수(전북대 과학학과)는 “최무선 장영실 허준 등 고려·조선시대 일급 분과 우장춘 이원철 이호왕 등 근·현대 일급 분을 선정했는데 전엔 몰랐던 이름이 있었다”고 했다.

헌신규 박사였다. 그런데 뒤져보니 업적 자료가 제일 풍부하더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그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헌신규 박사는 한국인 1호 임학 박사(세계적 육종(育種) 연구 업적)을 남겼다. 더 중요한 것은 험했었던 국토를 웅장하게 바꿔놓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헌 박사의 대표 업적 세 가지는 리기데다 소나무 교배, 이탈리아 포플러 보급, 은수원사 시나무 개발이다.

식민 지배와 6.25전쟁으로 한국 산은 다 민둥산이 돼버렸다. 어떻게든 빨리 산에 나무를 채우는 게 급선무였다.

헌 박사가 육종하고 보급한 나무는 20년을 키우면 20~30cm 자라는 속성수(速成樹)들이었다. 이런 나무 수의 그루가 1950~80년대에 한국의 전국 곳곳에 심어졌다.

리기데다 소나무는 수원시의 서울대 농대 임학과 교수로 있던 헌 박사가 1951~53년 미국 연구 시절 리기데다 소나무 암꽃에 데다 소나무의 꽃가루를 교배해 수백개 종자를 만든 후 국내로 들여와 개량한 나무다.

리기데다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하지만 생장 속도가 느리고 제철이 좋지 않은 것이 흠이다.

데다 소나무는 정반대 성질을 가졌다. 리기데다 소나무는 부모 나무에서 각각 좋은 점만 물려받았다.

헌 박사는 1954~62년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포플러 330종을 들여와 우리 풍토에 맞는 것을 골라 보급했다.

장기영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국일보가 1964년부터 ‘포플러 1억그루 심기 운동’을 펴 뒷받침했다. 헌 박사가 1986년 74세로 타계할 때까지 2억8000만그루가 심어졌다고 한다.

이탈리아 포플러는 하천가에 서 주로 자란다. 헌 박사는 산에서도 자라는 포플러 수종(樹種) 개발에 애를 썼다.

그 결과가 은백양에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한 잠종 포플러

인 은수원 사시나무다.

은수원 사시는 빨리 자라는 데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오염에 견디는 힘이 강해 가로수로 많이 보급됐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치산(治山) 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 리기데다 소나무·이탈리아포플러·은수원사시는 모두 10대 권장수종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프차도 사줄 정도로 헌 박사를 쫓았다.

박 대통령은 1978년 은수원사시나무 개발 공로로 헌 박사에게 5.16민족상훈을 수여하면서 나무 이름을 헌 박사 성(姓)을 따 부르도록 했다. 그 후로 은수원사시는 ‘헌(玄)사시나무’가 됐다.

산림청은 지난 2001년 식목일에 헌신규 박사, 박정희 대통령,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조림업 임종국씨 등 네 명을 광릉 국립수목원에 마련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정준 명예교수는 “헌 박사는 세미나에선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제자의 발표 때는 꼬박꼬박 노트에 적으면서 질문했던 분”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과학자 영웅(英雄)’이 있었던가.

헌 박사처럼 탁월한 학문 성과를 남겼고, 후학을 존경해 받고, 국가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과학자라면 국가 영웅으로 기억돼야 한다.

헌 박사는 평안도 태생이지만 거의 평생을 수원에서 활동하고 살았다.

지자체가 ‘나무 영웅’의 발자취를 어딘가에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3월을 보내며



박평일(농대 69)
미주 동창회 감사

1.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들은 헤어졌지요/ 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를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한 번쯤은 불러보는 애창곡이다. 내 나이 맞만은 아닐 것이다. 계절이 남기고 간 이 못 모르는 그리움들은...

계절은 숙명이다.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나가는 인연이 바로 계절이다. 그런 면에서 계절은 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계절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내 슬픔 또한 꿈의 추락에서 연유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를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2. ‘벚꽃·철쭉·모란·버지니아 도그우드·게나리·불루벨...’

이름 모르는 야생화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아니, 따사로운 3월 오후의 햇살에 놀라 운무(雲霧)로 스러져 가고 있다. 그 화사함, 찬란함, 소박함들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그리움의 파편들만 3월의 마지막 봄 하늘을 흩날리며 부유(浮游)하고 있다.

서글프다. 어떤 시인이 말했는가? 그리움이 변해서 꽃이 된다고.

행여, 그 시인은 알고 있었을까? 꽃과 그리움의 차이점... 꽃은 사라지나, 그리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씨앗이라는 것을...

‘난 사랑은 꽃과 같다고 생각해 요/ 당신은 그 사랑을 파울 유인한 씨앗이요/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한 겨울 차가운 눈 밑에/ 봄의 따스한 태양 빛에/ 장미로 피어나길 기다리는 그 씨앗을’ (Bette Midler가 부른 팝송 ‘The Rose’에서)

3. 흔히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시인 엘리엇은 ‘4월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가장 전인

한 달’이라고 노래했다. 나에게 3월은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계절의 어머니다.

꽃들의 죽음은 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죽음은 대지에 연두색 새순들을 키우고 나무가지에 싹의 움을 트게하는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

죽음은 계절을 낳는 위대한 자연의 어머니다.

참으로 요상하? 풍광 일어 불은 대륙의 겨울을 깨는 것들이 억센 들쭉들, 아름드리 나무들이 아니고 연약하다 연약한 잎 없는 꽃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연약함으로 가장 강함을 물리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주창조의 신비일 것이다.

꽃은 연약하다. 그러나 생명을 낳는 꽃은 강하다.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리고 그리움의 씨앗은 죽음보다 강하다. ***

<버지니아 숲 속에서>

책한다.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편을 들어주며 남남 갈등을 키우는 종북세력이 있기에 도발 유혹을 더 느낀다.

반면 국론분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대북 안보 대응을 힘들게 한다.

10년 전 두 여중생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인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전국을 반미 촛불시위장으로 만들었던 핵심세력은 2년 전 순국(殉國)한 해군 46용사를 위해선 촛불도, 한 송이 꽃도 들지 않았다.

천안함 비극 2주년에 이틀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46용사와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굶어보리라.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당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북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 평화는 지킬 능력과 정신을 가다듬지 않은 채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의 마취에 빠져 있다가는 다시 우리 젊은이들을 잃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정부와 군은 물론이고 은 국민이 성찰할 때다. 46용사와 한 준위에게 거듭 죄스러운 시간이다.***

*동문 재현들이 기고해주신 모든 글들은 본 동창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4.19 의거 52주년 특별기고

불시의 혁명가



강창욱(의대 61)

튀니시아의 소도시에서 여덟 식구의 연명을 위해 과일행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저라는 소년이 경찰에 행상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판 수레를 빼앗기고 팔까지 맞아 분함을 참다 못해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자 젊은이들이 대거 반기를 들고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다.

이것이 최근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즉 '제스민 혁명'의 발단이다.

튀니시아 벤 알리 대통령의 부패한 폭군 정치와 같이 역사를 역행하는 중동제국에게 국제사회의 손 하나 댈 수 없었던 것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시골소년의 분노가 획기적인 혁명의 불씨가 되어 중동의 역사를 바꾸게 했다.

어쩌면 온 세계가 두려워 해 온 극우 이슬람의 위협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는 이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올 4월 19일에는 52년 전 일어났던 일을 더욱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 이기붕 부통령의 철권정치와 부정선거에 젊은 학생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데모를 일으켰다. 마산에서 고등학생 시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시체로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자 시위는 본격 불이 붙어 4월 18일 대구에서, 다음날 4월 19일에는 서울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장했다.

경찰 발포로 21명의 사망자와 172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튀니시아 부아지저의 분신자살이 제스민 혁명의 불씨였다면 김주열 학생의 희생은 4.19혁명의 뇌관 역할을 한 셈이었다.

혁명 구호를 부르짖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아침에 등교나 출근하는 대신 거리로 뛰쳐 나왔지만 그들이 그냥 남들 따라 나온 것인지, 이념에 북받쳐 나온 것인지, 하는 상념이 머리를 채운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의대의 졸업반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뛰쳐나갔고 6.25 이후 매일 같이 참가한 시위에 마비가 된 줄 알고 있었던 나도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인 날 우리 동급생들은 모두 입상가운을 입은 채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 거기서 농성하던 중 기관총 소리에 겁을 먹은 나는 중앙청 쪽으로 벽 담과 전봇대에 몸을 피하게며 피거

했다.

나는 택시를 한 대 남지하다 시피 해서 타고 서울 시가를 누비며 운전사와 함께 부상자를 발견하는 대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했다. 택시 운전사의 동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았다. 지도자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운반한 부상 혁명가들이 몇이나 되는지 기억할 수 없다.

밤 열시쯤 배가 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거나 나의 존재를 눈여겨보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내 자취방으로 가기로 했다.

원동에서 신촌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가라앉지 않은 흥분 때문인지, 교통이 두절된 것을 의식한 때문인지 걸어서 가는 길이 그리 힘드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먼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 그 중 하나의 생각은 '나도 혁명을 하겠는가'하는 것이었다.

이기붕의 작당들을 무너뜨리려는 혁명? 나는 사상이니, 정치적 이념이니 하는 것에 깊이 집착한 적이 없었다.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사회참여에 철부지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날에는 왜 내 몸이 그렇게 겁 없이 뛰어나갔을까.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한 획기적인 사건 4.19 혁명에 참여자로, 부상자 구호대원으로, 그 하루를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 다녔다는 것이 아직도 참담 같지 않다. 아무튼 이것을 우연한 혁명가(Accidental Revolutionary)라고 하여야 할까.

르네 지라르드(Rene Girard)의 모방의 욕망(Mimetic Desire)이라는 설(說)로서 집단적으로 좋게 생각되는 것을 모방하는 데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는 학설이 있다.

이렇게 나 하나, 너 하나가 모인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집단은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것을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그 참가자들은 새로 이루어진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헌하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4.19 시위에 참여했지만 나는 유공자는 아니다. 유공자와 무공자의 차이를 알지도 못한다. 아무도 나를 혁명가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도 기관총 총알을 피하려 했다고 하면 모두 피식 웃고 만다. 내가 실수로 해서 전봇대에서 몇 발자국 옆으로 나갔다가 총을 맞았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나의 인생관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는 용기 없는 급장이었음을 자인한다. 내가 부상을 입었다면 상상하기에도 충격적이었을 것이며 나는 분명 겁에 질리거나 중오의 불이 나를 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부모님을 안타깝게 한 죄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더욱 아절했다.

다음 날 고향의 부모님에게 무사하다는 전보를 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충효(忠孝)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 다음 해 1961년 4

“4.19 의거를 회상한다!”



김태호(상대 57)

1960년 4월 19일. 지금으로 부터 반 세기 전, 그 해 3월 15일에 치렀던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조작으로 이승만·이기붕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 대한 학생들의 항거와 이를 규탄하는 데모가 행하여졌던 날이었다.

경남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을 과잉 진압했던 경찰에 의하여 발생했던 사건 즉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군의 처참한 사체가 마산 앞 바다에 떠오른 사건이 주요 각 신문에 발표되면서 국민 모두의 분노가 극치에 달했다.

그 해 4월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데모가 매일 계속되었고, 서울 시내 대학들의 운영위원장 급의 학생 모임에서는 4월 20일(수요일) 미국 국무부의 '해거티' 공보비서에게 서울에 도착하는 날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데모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4월 18일(월요일)에 단독으로 데모를 감행했고, 경찰에서는 수십 명의 조직 장교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했다. 이 바람에 학생 수십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4.18 고려대 데모 학생들의 비참한 광경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4월 19일 서울 시내의 각 대학 및 고교에서는 데모에 가세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상과대학 경제학과 4학년이었다.

아라바이트로 원한 잡지사 '의

의 평론'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잡지사의 취재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8일 저녁에 올지로 4가 전자 중점에 서 고려대 학생들이 준비하게 쓰러져 누워 있던 광경을 보았다.

4월 19일 아침 학교에 나가서 학우들과 우리도 데모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했고, 친구 중 김남진 군(작고)이 운동장 교단에 올라가 "3.15 부정선거를 우리도 규탄합니다. 여러 분 모입시다"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으며 각 교실과 도서관을 다니면서 운동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오전 11시경 우리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출발해서 성동교·동대문·올지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으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 법원 앞으로 갔다.

법원 앞에 모여 있는데 "경무대(현 청와대) 앞에서는 경찰이 데모대원을 향해 실탄 발포를 해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이 트럭 위와 택시에서 피에 젖은 옷을 휘두르면서 시내를 돌고 있었다.

우리 상과대 데모대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법원 앞 광장을 나와 올지로 입구에 도달했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청와대로 가야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나와 시청 앞 광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발의 총성이 울렸다.

당시에 나의 왼쪽 손목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손등이 쏘는처럼 부풀어 올라왔다.

조선호텔 앞 갯생병원에도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이 총상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의 왼손목 뼈에 박힌 칼빈 총알 하나를 빼내고 치료를 받은 후 택시를 타고 동대문을 지나서 데모대에 있던 친구(임현섭)를 만나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들은 얘기지만, 그 때 시청 앞 광장에서 총을 쏘았던 국회의사당 옆 파출소 순경 2명

은 총알이 떨어진 후 데모대원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고, '이기붕 부통령 일가족 자살'이라는 비극과 데모대에 발포를 지시했던 최인규 내무장관의 사형 집행과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

그후, 4.19 데모는 '4.19 혁명'으로까지 호칭되기도 하였지만, 나의 견해는 '4.19 의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혁명은 합목적적인 계획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4.19 데모는 그러한 합목적적인 계획의 행위가 아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 4.19 데모의 정신과 현재 조국의 사회 및 정치 상황 >

4.19 데모의 정신은 정치는 정치의 근본 요인인 '정의와 진실'로써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19 이후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의 실책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해 볼 때, 과연 4.19 정신에 부합된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다.

아무리 50여년간의 사회 발전과 여건 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혼돈과 정치적 불안과 야합, 젊은세대의 부조리와 방황, 이해할 수 없는 중북·친북 사상 등을 4.19 정신을 들추어 조명하기에는 너무 순진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하겠다.

4.19 정신이 살아있었고 기반이 유지되어 왔다면 오늘날 같은 혼란과 불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해 본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대결하여 출마했던 신익희 선생께서 작고하시었던 날 오전, 나의 고향 순천역전 광장에서 연설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입니다. 영어로 서반트(Servant)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

월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내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 5.16 혁명이 일어났다.

5월 16일 오전 10시쯤 상부에서 해군도 혁명군에 가담한다는 통보와 그에 따른 훈령이 내려왔다. 이것이 군사혁명이므로 군복 입은 사람은 모두가 명실 공히 혁명군이 된 셈이다.

6월 30일 입관후 입관식 때 입은 정복을 입은 채 금태를 두른 군모를 쓰고 길에 나갔더니 군인이나 경찰은 다 우리에게 낯두이 경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당시 모든 군정은 전투복을 입고 근무했기 때문에 금태로 장식된 정복 군인은 상당한 상관으로 보였던 것은 추측할 만 하다. 또한 한 번 피동적으로 혁명에 가담한 셈이다.

한동안은 어디를 가나 낯두한 존경과 혁명군으로서 대접을 받았다. 다방에서 차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식당에서 음식 값

만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극장은 모두 무료였다. 기차를 타면 모두가 자리를 만들어주며 비켜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우리는 곧 실무에 들어가 평범한 군의관으로 임무에 매달리게 됐다. 잠깐 혁명군의 옷을 입었던 것은 잠시의 단꿈이었을 뿐이었다. 이것도 우연의 혁명가의 운명인가.

금년 4.19를 기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 및 기념 사업회 임원이 4.19 묘지 참배 겸 4.19 단체(4.19 혁명 유공자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등)에 공식 사죄하러 했으나 4.19단체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저술에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구성된 몇몇 엘리트(Eliters, 전직 국가 원수의 모임)가 남북평화의 실마리를 모색하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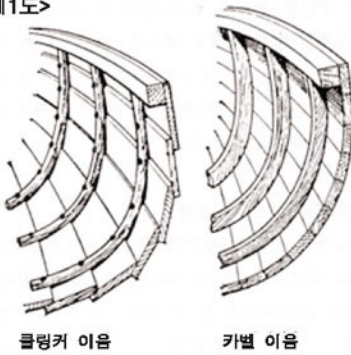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이름이 내 뇌리를 강타처럼 스쳐갔다. 그는 남아공의 인종차별(Apartheid) 반대운동을 했다는 죄로 27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어려웠던 수모를 겪은 후 옥고에서 풀려나 남아공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의 껍속에는 티끌만치도 복수심이 없었고 용서와 화해만 있었다는 것이다. 분노의 피가 끓임없이 끓는 이들에게는 마보같은 소리로 들리거나 아예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좋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인류의 혁명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 좁아져 가는 세상에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면 분노나 복수심 같은 추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어떤 아이들이 싸우고 난 후 금방 다 잊고 함께 노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가 아쉽다.

<5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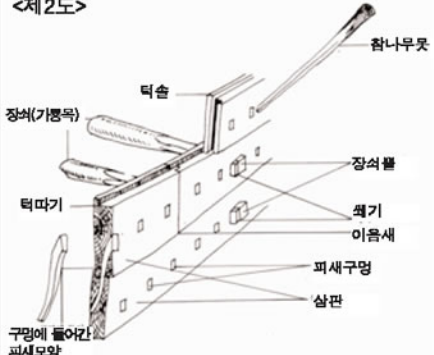
<제1도>



클링커 이음

카벨 이음

<제2도>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 467주년 기념 기고

판옥선의 탄생과 역사적 공헌

이내원(사대 58)
이순신 숭모인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판옥선을 통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선진적 정책과 시대에 따라 나

타나는 문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더해져서 나라의 운명을 극명하게 가름하는 생생한 실례를 보게 된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전 세계를 영토로 하고 있으며 대양해군(大洋海軍)을 부르짖은지가 언제인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서는 사리사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의 물염치한 독도와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판옥선의 탄생 배경= 왜구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연유로 해안 방

대책이 종종 때부터 주요 국제으로 부상해 인종대를 거쳐 명종대에 결실을 보아 건조된 신형 대형 전투선이 판옥선이다.

이 기간 조선 조정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방이 이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이어 왔다.

왜구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싸움배의 크기가 작더라도 많은 수의 병선(兵船)을 만들어 숫적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소함주의자'들과 반대로 왜구들의 특기는 배에 기어 올라와 칼싸움을 하는 것이니 배의 숫자는 적더라도 왜구들이 기어 오를 수 없도록 선체를 크고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함주의자'들이었다.

이 격렬한 논쟁에서 다행스럽게도 '대함주의자'들이 승리하여 탄생한 대형전함이 바로

판옥선인 것이다.

▶한선의 전통과 판옥선의 구조= 한선의 기원은 통나무 뗏목배에서 진화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대형 조운선(漕運船)이나 병선(兵船)이 모두 밀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으로 되어 있어 수심이 얕은 연안 항해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질체절명의 평랑해전에서 불과 13척의 조선 판옥선이 거침없는 해전을 감행한 반면 일본의 침저형(V자형) 대형선박 안택선은 해전에 진입하지 못하고 소형선박만 투입했다가 참패 당한 이순신의 기발한 지리전은 바로 이 판옥선의 특징을 이용한 신화같은 승리인 것이다.

목선 제작에 있어서 선체의 외판은 붙이는 방식은 <제1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카벨(Carvel)식 이어 붙이기나 클링커(Clinker)식 덧붙여 대기가 보통인데 한선의 방식은 <제2도>와 같이 아주 독특한 질체형 L자 홈을 덧대어 나무 못 박기로 되어 있다.

그 결과 물에 들었을 때는 판자와 나무못이 물에 붙어 나뉘지 않고 선체를 더욱 단단히 결합시켜 강인한 선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임진왜란 해전에서 왜군과 혼전이나 거북선 돌격전에서 배와 배가 부딪쳐 왜선들을 쉽게 부수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체 강도의 차이에는

위와 같은 구조적 차이 뿐 아니라 아열대 기후에서 무려 무려 자라 가볍고 나약한 왜선의 선체와 조선의 춥고 혹독한 기후를 견디며 자란 한선의 선체인 적송(赤松)의 목재 강도 차이가 한몫 했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순신의 판옥선 활용= 첫째, 이순신은 대형화된 판옥선에 방탄 지붕을 덮어 태종대왕대에 기록되어 있는 거북 모양으로 변용함으로써 막강 돌격선 거북선을 개발해 냈다. 크기는 작았지만 태종대왕 때의 거북 모양이라는 방탄 아이디어와 종종 때의 대형화 된 판옥선의 크기를 결합한 것이다.

둘째, 판옥선의 크기의 장점에 착안하여 보통 좌우 각각 6문씩 12문과 앞 뒤 1문씩 14문의 최무선 화포를 탑재해 하여 판옥선을 가공할 화력의 포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그 효율을 확대하고 극대화한 판옥전선은 기발한 거북선의 모태가 되면서 임진왜란 당시 본격 화포전술을 선도하고 한·중·일(당시 조·명·왜) 삼국 중 단연 최강의 해상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임진왜란 승리의 기초를 제공했다.

판옥선은 단순히 큰 배가 아니라 민족의 뛰어난 창의력과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리더의 통찰 응용력이 결합하여 나라를 구한 찬란한 최강 전투함이었었던 것이다.***

"Why High Unemployment Level will Persist?"

김태환(문리대 60)
EMiniHaven CEO

Interviewer for Harvard College Applicants.

Last summer, I volunteered to become an interviewer for Harvard College applicants. I accepted an invitation from the Los Angeles Harvard Club.

I interviewed two applicants for Early Action and one of them was accepted. I was very happy for him.

I expect more interviews for regular applicants later on. The way I interviewed the applicants was that I interviewed them as if I was an employer and they were the job seekers.

For instance, I asked why I had to accept him/her instead of other qualified applicants, what he/she could do better for Harvard and fellow students than the others. Also, I tried to discover compelling reasons why I had to

select him/her instead of their competitors.

I think the role of interviewer is very rewarding and inspiring not only to me but to the interviewees as well.

I wish some of you will also volunteer to be an interviewer when the opportunity knocks.

Great Recession and Unemployment. It is my opinion that the Great Recession is the beginning of the fall of the American Empire. Many attribute the cause of the financial fiasco to the collapse of mortgage related derivatives.

However, I firmly believe the excessive greed of corporate executives and their financial engineers contributed to the turbulences in 2008 and beyond. Lehman Brothers failed but, ironically, other biggies were sav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because they were 'too big to fail'.

Major casualties of the debacle are tens of millions of laid-off American workers and professionals who still cannot find equivalent or even similar jobs.

The trimming of American middle-class jobs had started even long before the Reces-

sion. Exporting jobs started with the manufacturing jobs, high-tech positions followed next. And then, recently, menial service jobs like customer service phone support, etc.

Is China the Job Stealer? One of our proudest HBS alumni Mitt Romney proclaims that China stole American jobs. Whata bull-shit! I believe he must know better than that! I think that was simply his election year rhetoric only. It is American CEOs who decided to ship well-paying jobs overseas to China, India, even Indonesia (my Nike sneakers were made there), where the labor is cheaper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companies' bottom lines and fatten their bonus checks. Once the jobs are gone from America they are gone forever.

Will new, high-tech companies bring many good paying jobs here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get about it. I think you all heard or read about Solyndra in the solar power industry and electric car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got government subsidies and/or loan guarantees. But, Solyndra is going through

bankruptcy proceedings and most electric cars are built overseas.

The only jobs available now for the unemployed are hamburger flippers-but those jobs don't support families. The jobs have gone overseas and they won't come back. Therefore, there is no use waiting for the lost jobs to return.

Consequences of the Fallacy of Composition

I thought something might happen out of the increasing discontent from the unemployed young college graduates with no job as well as laid-off workers and professionals with no job prospects. Finally, those desperate persons started Occupy Wall Street, and Occupy LA and the likes all over major cities. Their major complaints are centered on 'concentration of wealth in the hands of 1% of population'. In other words, it is a distribution of wealth issue.

I happened to learn an amicable way of distribution of wealth, not by robbing (Robin Hood), confiscating (Mao Zedong) or making new laws (Obama?), but by trading E-Mini S&P 500 Futures (E-Mini, hereafter).

That's why I wrote You Are Hired: 10 Million Jobs Available in which I explain why E-Mini Trading will help the unfortunate to be able to

bring daily bread to their dinner table. Once, GM executives insisted that what is good for GM is good for America, however, it is no longer true when a company ships jobs overseas and all others follow suit. Tha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of the 'Fallacy of Composition'.

Please visit my web site www.EMiniHaven.com and read a few chapters of my book You Are Hired: 10 Million Jobs Available. Call me at 213-784-6960, or email me at meattdykim@aol.com

I will send you a free autographed copy.***

<4면에서 계속>

용서와 화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은 가여워 보인다. 우리 민족의 파멸적 강박증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도산 안창호(鳥山安昌浩)선생은 일제 강점기 민족을 구하는 길로 민족의 정신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홍사단과 수양동우회를 설립했다.

그 분이 민족애(相愛)를 기르기 위해 가르친 것 중 '정의돈수(情誼敦修) 평생을 두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말과 '호조호익(互助互益) 서로 도우면 덕이 된다'를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진정으로 사화(敎和)를 위해 싸우는 혁명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것 또한 우연한 혁명가(Accidental Revolutionary)의 허망한 혁명가의 꿈꾼인가.***

특집<암> 황성주 박사 칼럼<3> 암 FAQ

암의 예방, 발병과 치료 문답

치명적인 질병인 암은 우선 예방에 주의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선행 암에 걸렸더라도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질환도 아니다.

다음은 암의 예방과 발병, 그리고 치료에 대한 황성주 박사의 일문 일답이다.

Q.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4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약 70만 명(보건복지부 2008년 발표 기준)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정신박약아와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암에도 안 걸립니다. 정박아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암 전문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캔서 2008년 8월호는 런던 암 병원에 입원한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가운데 62%가 암 발생 전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무너지기 전에 정신적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면서 정신적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것은 결국 면역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은 유전적 이유가 가장 크고, 담배 등 외적 환경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직접적인 사인이 암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자포자기 등 다른 이유로 죽어가는 암환자도 많이 보았습니다.

암환자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치열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인생을 관조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 17년 전에 자연 면역요법인 미술포 요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셨는데, 예방의학자가 대체의학 요법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기회가 되어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 전문 병원에서 통합의학과 전인치료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시행하고 효능이 입증된 자연 면역요법인 미술포

요법을 알게 되면서 효능을 확신하고 귀국 후 임상 예방의학과 통합 면역요법의 강점을 결합한 통합의학 분야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17년간 통합의학학을 연구하고 시행하며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암과 실제 암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확고한 투병자세를 갖추면 암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암을 치료할 때는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암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Q. 스트레스 또는 마음의 문제는 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제 환자 중에 50대 초반의 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방암 2기 초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 완치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 1년 만에 재발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알아봤더니, 환자는 작은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투병 중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잔재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암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 외적 환경도 영향을 끼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원인. 희망을 가지고 식이요법으로 잘 먹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다. 저는 깜짝 놀라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자도 동의했지만 이미 암이 뇌로 전이 되어 결국 한 달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과감히 환경을 바꿔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40대 초반 주부로 유방암 환자였는데, 남편과 함께 시골로 이사해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암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속으로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4배 높습니다.

앞에서 한 번 언급했지만 영국 암 전문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캔서(BMC)’가 지난 2008년 런던 암 병원에 입원한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가운데 62%가 암 발생 전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보다 정신적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고 이것이 면역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 털어놓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털어놓기는, 마치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특히 암환자는 닫힌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살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도 건강에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여유를 갖고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와 늘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Q. 마음이나 생각의 태도를 바꾸면 모두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A. 일단 암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도 그렇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후에도 살아있으면 다들 왜 살아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체계, 다 죽는다고 믿는 구조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암 세포는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암 세포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병든 내부환경



↑황성주 박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암 환자(보이지 않음)에게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충을 복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몸은 먹는대로 만들어집니다. 즉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암이나 질병에 걸리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식생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 암을 극복하려면 어떤 음식

받고 체력이 저하되다 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암환자는 절대 굶어서는 안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입맛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암 선고를 받고 식욕이 생기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암 세포가 자라면서 정상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중도 줄게 됩니다. 그러므로 암 환자는 반드시 영양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제대로 먹고 잘 먹어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저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가 끝난 후 암 환자들에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조언합니다.

‘반드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며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식이요법을 지키되 즐겁게 먹는 편이 좋습니다.

암 환자의 식사는 반드시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 체력을 회복한 후에는 원인요법의 차원에서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암 환자들은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Q. 박사님께서 평소 실천하시는 건강 식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식을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일반식으로 평범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일정 속에서 생식을 거르더라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입가가 험다든지 뽀루지가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식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 10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을 동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Dr. Hwang's 건강 십계명

1.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그러기 위해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2. 아침 산책을 생활화하세요. 아침 산책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계획합니다.
3.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의 생활화.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운동하세요.

4.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설정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이 뭘까 찾아보세요.
5. 꿈과 호기심,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맑고 건강합니다.
6.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목욕, 좋은 음악, 낚잡, 기지개, 심호

흡 모두 좋습니다.

7. 세 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세요. 음식은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8. 적절히 휴식하세요. TV 시청, 게임, 인터넷 즐기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9. 건강과 성공의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0.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집니다.



특집<암> MD앤더슨 김익신 박사 칼럼<> 병 정보 구구단처럼 외는 미 환자들

“미국 암환자, 알파벳 몰라도 암지식은 박사급 한국 암환자, 의사출신마저 자기 상태 잘 몰라”



김익신(의대 66년 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미국, 모든 음식점서 지방량 제한 용량 초과하면 고발당해, 의사들 “베이컨 금식해야”
한국, 희식엔 삼겹살·소주 다 반사... 드라마에도 육식 장면 많아 지방 섭취 조장하는 셀

이곳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미국 암환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암 치료 내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지금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 나?” 고 물으면, 환자가 “탁솔(taxol) 30mg 받고 있다” 고 대답하는 수도 있다.

탁솔은 항암제 이름이다. 이 처방 약 이름은 물론 용량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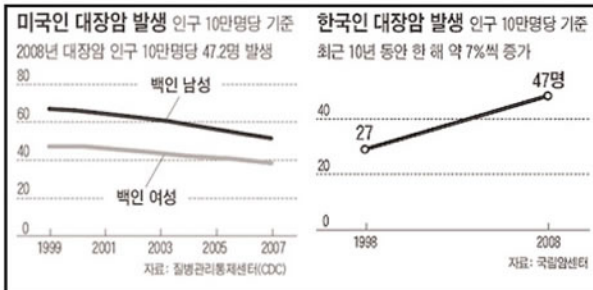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치료를 몇 회 받았고, 지금은 뭘 받으려 한다’ 고 꼭 부러지게 대답한다. 나이 든 노인들은 그러한 내용을 종이에 써와 보여준다.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들도 자신의 질병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반면 한국 암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암 치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무슨 약 먹고 있는 나?” 고 물으면, 그냥 “빨간 약(또는 노란 약)을 먹는다” 고 말한다. 용량까지 정확히 아는 환자는 지금껏 한 명도 못 봤다.

암 종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환자들에게 “무슨 암에 걸려서 왔나?” 고 질문하면, “폐암(또는 위암)” 이라고만 답하는 게 끝이다.

폐암만 해도 암이 시작된 세포에 따라 암 종류가 수십 가지



있고, 저마다 치료법이나 생존율이 다른데 말이다.

미국 암 환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폐암 중 비(非)소세포암 3기” 라고 말하기도 한다. 폐암 종류와 병기(病期)까지 꼭 적어서 말한다.

한국 환자들이 병기까지 아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암은 모두 초기 아니면 말기 식이다. 심지어 의료인 출신 암 환자들도조차 자신의 암 상태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다.

미국 암 환자 중에는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의사 수준으로 줄줄이 꿰고 와서는 “MD 앤더슨 병원이 그걸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 왔다” 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세계 넘버원이다. 요즘 대학 나온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그럼에도 여러 나라 환자 중 한국 환자들이 자기 병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 의사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도 그렇게 궁금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꽤 있다. 환자 스스로 자기 병과 몸 에 대해 공부해야 치료 결과가 좋은 법이다.

심장병의 주범인 콜레스테롤만 해도 그렇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을 넘으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다 안다. 그중에서도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데, 이 수치를 아는 환자는 드물다. LDL이 높으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방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가끔 본다.

손자 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이라고 했듯이, 특히 암 환자는 자신의 암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잘 치료해줄 의사와 병원을 신중히 골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큰 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암을 다 잘 고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선택한 병원이라면, 의료진을 믿고 따라야

“미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 - 구체적인 질병 진행 과정부터 병명과 약 이름도 숙지, 한국은 병 지식에선 후진국 - 세계최고 교육열 자랑해도 질병지식은 낙제점”

하지 않은 모양이다.

환자가 자기 병을 잘 모르면 제대로 된 질병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며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만, 환자가 말하는 작은 단서 하나로 약을 바꾸거나 치료

치료가 잘 된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한 대기암 회장은 암 치료로 이곳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단 한 번도 의료진에게 만문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힘든 암 치료 과

는 ‘자기 암 공부’ → 적합한 의료팀 선택 → ‘믿음과 희망 갖기’ 식으로 가야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오는 암 환자들을 보거나, 한국과 미국

의 속을 왕래하는 콜레스테롤에 두 종류가 있다.

이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하나는 간에서 만들어져 각 세포로 영양소를 공급하러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다시 간에 귀환하는 것으로 각 세포로 공급하는 것이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귀환중인 것이 고밀도(HDL)콜레스테롤이다.

그런데 혈관에 달라붙어 기름때가 끼게 해 혈관을 좁히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다.

계란 노른자위 등에 많은 콜레스테롤은 그냥 콜레스테롤로 저밀도·고밀도로 나뉘어 부르는 것은 단지 혈액 속에서일 뿐이다.*** <일산 국립암센터>



↑유방암 환자가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는 모습. 암 환자가 요가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잠을 더 잘 자고, 피로를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P 연합뉴스

정에서 그 양만인들 왜 불안한 게 없었겠는가.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암 치료

을 오가며 암 발생 패턴을 보면, 한국인 암은 10~20년 격차를 갖고 미국인 암 발생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예전에는 위암·간암 환자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장암·유방암 환자가 부쩍 늘었다. 십수년 전 미국 상황 그대로다. 서구식 식사로 지방질 섭취가 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의사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베이컨 먹지 말기 캠페인’ 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파는 햄버거에도 동물성 지방량 제한 법안을 만들어 지방량이 초과하면 고발당한다.

음식점에도 지방량 제한 규정을 두어 음식에 과도하게 지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식품 당국이 이를 잘 지키는지 보기 위해 식당을 불시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이런 지방 섭취 줄이기 운동으로 대장암 발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대장암·유방암이 급증하는데도 ‘삼겹살 회식 문화’ 가 여전하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삼겹살 구워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드라마가 지방 섭취를 조장하는 꼴이다.

식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이제 고기 많이 먹는다고 마냥 좋은 세상은 아니다.***

Key Word

▶비소세포암= 폐암은 암세포가 기관지나 폐포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기관에서 생겨 혈관·림프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

현미경적으로 암세포 크기와 형태에 따라 소세포(Small cell)암과 비소세포(Non-Small cell)암으로 구분되는데 비소세포암이 폐암환자의 80~85%에서 발생한다.

비소세포암은 소세포암이 아닌 종류를 묶어 부르는데 분류 이유는 진행속도, 치료방법, 예후, 치료결과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상피

세포암과 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누어진다. 비소세포암 중 특히 흡연자들에게서 편평상피 세포암 발병률이 높고 가장 흔한 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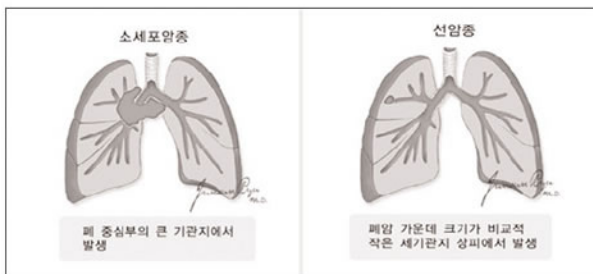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발병연령은 40세 이전은 드물고 50세 이상이면 급증해 55~65세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다.

성별 발병률은 남성이 3~4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 흡연인구 증가로 여성의 폐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폐암은 조기발견이 드물고 쉽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저조한 편이다.

▶콜레스테롤(Cholesterol)= 혈



어느 봄 날의 감상

“벚꽃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전홍택(상대 61)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아침 식사를 하며 TV뉴스를 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워싱턴에 이미 벚꽃이 만발했다는 것이다. 제퍼슨 기념관 앞 호숫가에 늘어선 하얀 꽃행렬을 보며 나는 그만 혼란에 빠졌다. “아니, 이제 3월 중순 밖에 안됐는데 벚꽃이라니. 그리고 봄 소식은 개나리가 먼저 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개나리는 이제 밤우리가 맺기 시작했는데...”

하긴 지난 겨울부터 조짐이 이상하긴 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매년 한국과 비슷한 기온을 보여왔는데 이번 겨울은 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고 사뭇 따뜻하게 보였다.

밤새 눈이 소복소복 온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그 적막감과 포근함을 사랑하나는 그야말로 삭막한 겨울을 보내고 말았다. 그래서 이 철 이른 봄 소식은 유별나게 나를 당황하게 했다.

어쨌든 봄은 이미 온 모양이니 봄 애기나 한 번 쵸 볼까. 이것을 춘정(春情)이라고 하는가. 집 안 서가 앞을 오가며 생각에 잠긴다. 문득 화려한 색깔의 책이 눈을 끈다.

<벚꽃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우타노 쇼코 지음.

엷은 연두색 바탕에 커다란 벚꽃을 가슴에 단 처녀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한다. 파알간 위 아래 입술이 약간 벌어져 있어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책을 펴 아무 데나 눈 가는 데를 읽어본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하오의 정사(방사?)를 막 끝내고 숨을 조절하면서 상대 여성의 가슴에 귀를 댄다.

고동 소리가 들린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살갗에서 살갗으로 전해지는 그 소리에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울림에 마음이 편해진다. 어머니 때 속에 있을 때는 하루 하루가 매일 이런 느낌이었으리라. 이대로 잠들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 눈을 뗄 때 갓난아기로 새로이 태어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성 작가가 쓴 추리소설로서 2004년 일본에서 다섯 개의 대상을 받았다 한다. 주인공 남자의 일인칭 독백 형식으로 썼는데, 남성들의 마음의 행로를 여성의 눈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솜씨가 여간 아니다.

소설 속의 ‘아름다운 벚꽃 이미지’라고 하면 나는 단연 최인호씨의 것을 들고 싶다. 제목은 잊었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벚꽃 만발한 길로 단정한 신사복의 중년 남자가 걸어 오고 있었다. 암(癌)으로 죽은 아내의 화장(火葬) 상자를 짊어 모셔 놓고 나오는 길이다.

산들바람에도 벚꽃잎들이 하얗게 떨어져 그의 검은 신사복 어깨에 내려 앉는다. 남편을 이슬에 남겨두고 차마 저승길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아내의 눈물인 양 소리없이, 귀없이 하얗게 그의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버스 정거장에 도착했고 버스를 타고 서 울 역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정처없이 걸었다. 어느덧 신세계 백화점 앞에 온 그는 데포르 쪽 신호등 앞 보도에 섰다. 신호를 기다리며 무심코 앞을 바라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맞은 편 군중 속에 죽은 아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다. 불에 태워져서 남기고 온 아내의 그 누런 얼굴이 아니고, 오래 전 연애하던 때의 그 얼굴. 옛되고 보송보송한 그 모습이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런 그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굴 찾는 듯 두리번 거리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죽은 아내는 행인의 바지 뒷주머니로 손이 가더니 지갑을 빼 자기 주머니로 넣는다” “저기 네 묘비석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었다. 파란 불이 켜지고 군중들이 마주 움직일 때 그는 꿈작꿈작 서 있다가 몸을 돌려 그녀를 멀찌감치 따라가기 시작했다. 꿈길을 건듯, 봉계구름 위를 건듯 그렇게 그녀를 쫓고 있었다.

물밑듯 행복의 나른함이 그를 감쌌다. 얼마만에 느끼는 달콤한 감정이었나.

그녀가 남대문 시장 앞에 도달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물고기처럼 날렵하게 사람들 사이를 헤엄치듯 걸어 가던 그녀. 어느 행인의 바지 뒷 주머니로 손이 번개같이 가더니 지갑을 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전광석화같은 그 솜씨에 그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장승처럼 서 버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가는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친다. 이제 스토커(미행자)로 오해받지 않고도 말을 걸 수 있는 꺼리가 생긴 것이다. 빠른 걸음으로 그는 그녀에 접근해 갔다.

소설은 이렇게 벚꽃 핀 산사길에서 시작되어 신세계 백화점 앞으로, 다시 남대문 시장 입구로 이어진다.

한 번 잡으면 끝 페이지까지 손을 못 놓게 하는 최인호씨를 나는 좋아한다. 요즘 압으로 손가락에 골무끼고 글을 쓰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 저리다.

계있는 서두를 둘러싼 은회경작가의 <새의 선물>도 잊혀지지 않는다. 소설은 다짜고짜 <나는 쥐를 보고 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다.

유럽풍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테이블에서 주인공 처녀는 멋진 청년 실업가와 와인을 걸들인 스테이크 요리를 앞에 놓고 있었다.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딱 입술 사이에서 포크를 빼내면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 보았다.

그녀의 시선 속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쥐가 들어왔다. 몽클 몽클 살이 켜 이 젓빛 쥐는 흰 새 없이 이빨을 갑작거리다가 우연히 이 여인과 눈이 마주 친 것이다.

“...쥐가 짧은 다리를 뻗어 열 가지로 옮겨 앉자 꼬리가 긴 곡선을 그으며 쭉쭉 따라가 숨는다.

꼬리. 나는 저 꼬리를 어린 시절 변소에 쪼그려 앉아서 내려다 보곤 했다. 나무발판 밑의 구멍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 아래를 내려다 보면 거기 똥 위에 쥐가 있었다...

그 쥐는 마치 흙손으로 개어 놓은 시멘트 반죽처럼 제법 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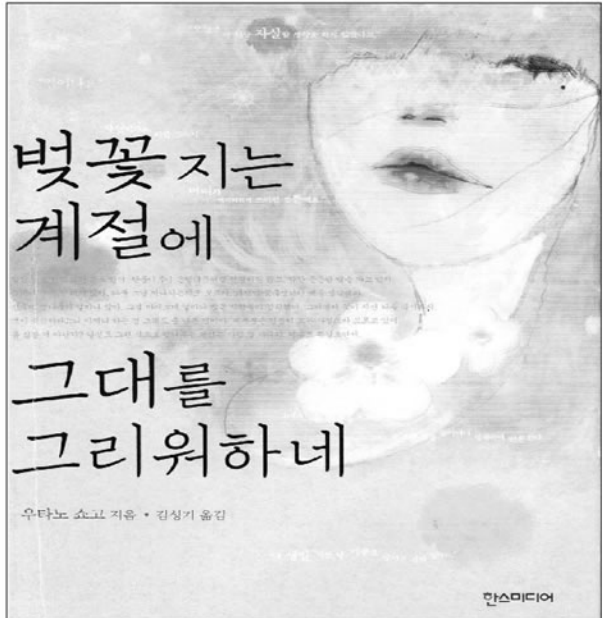
들꾸들한 똥 위에 가볍게 올라 앉아 이리 저리 돌아다녔다.

누렇게 삭아버린 종이쪽과 불다 만 고무 풍선 같은 허연 끈뭉 사이를 헤치며 그 때마다 꼬리가 유연한 곡선으로 쥐의 행로를 뒤쫓았고 쪼그리고 앉은 채 나는 다리가 저릴 때까지 그 꼬리의 향방을 뒤쫓는 데 열중하였다...

장장 387페이지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 쥐의 꼬리는 주인공 여인을 60년대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며 과거와 현실을 연결시켜준다.

60~70년대 한국에서 살았던 나에게 이 소설은 너무 재미있었고 또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힘들게 살아 왔던 그 시절이 사실은 가장 복된 기간이었다. 가난했지만 모두가 못살았기에 그게 힘든건지 불행한 건지 알지 못했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에 나는 그저 행복했을 게다. 단지 그걸 느끼지 못했었을 뿐.

<반 고흐 그림 전시회(Van Gogh Up-Close)>가 필라 미술관에서 5월 6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그림 중 정물화와 풍경화 40



점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있는 라면 눈시울이 축축해진다. 그의 그림 속에는 순수한 영혼의 절규가 있고 소설같은 이야기가 있고 장중한 음악이 연상되기도 한다.

세계 영화 감독들의 존경을 받는 일본의 거장 아키라 구로사와는 그의 영화 <Dream>에서 반 고흐 그림에 반한 사람을 단편으로 그렸다.

고흐 그림에 심취한 나머지 그의 그림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의 작품 속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드디어 아를르 별관에서 반 고흐를 만난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나온 해가 일년 먼저라는 것이다. 즉시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죽은 아이가 진짜 Vincent Van Gogh 그의 만아들이었는데 사산(死産)을 했다고 말해 주었다. 결혼 후 첫 아이였기에 기대가 남달랐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다음 해에 낳은 아이가 또 사내었고 해산일마저도 같은 3월 30일이었다. 그래서 아예 첫 아들의 이름인 ‘Vincent Van Gogh’로 이 두번 째 아이를 호칭했다는 얘기가 있다.

부모 입장에서야 첫 아이를 못잊어 같은 이름을 지었겠지만 어린 반 고흐에게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마음에 혼란이 생겼다.

“그럼 난 누구야. 죽은 형이 살아난게 나야? 아님 내가 나야?”

매주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고흐는 교회 묘지를 지날 때마다 이런 혼란을 느껴야 했다. 장성해서 한 때 불교에 심취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불교의 환생원리를 좀더 알고자 해서 그랬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곁에 있으려는 그의 의지는 점차 강해졌고 그림 속에 녹아들었다. 장성해서 한 때 불교에 심취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불교의 환생원리를 좀더 알고자 해서 그랬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고흐의 그림은 정말 독특하다. 그림의 초보자조차에게도 그의 그림은 금방 식별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형 Van Gogh보다 좀더 나은 자기여야 한다는 마음 속 경쟁생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했나 보다.

심상(心像)을 풍경에 투영해 그림 속에 넣으려 했기에 그의 그림은 깊고 독특할 수 밖에 없었고 종래의 구상에서 추상 미술의 문을 열었나 보다.

필라 동창회가 지난 4월 14일 새봄 음악회를 열었다. 이 봄에 클래식 생음악을 듣고 고흐 원화를 직접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

동문동정(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이상목 교수 장애학생 인솔 LA연수

전신마비 사고 악연의 도시, 재활 통해 좌절 대신 희망 줘,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시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악몽의 도시요? 천만에 행운의 도시입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9시 반경 LA의 다우니시 랜초 로스 아미노스 재활 센터 정문.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남성이 반갑게 웃는다. 낯익은 얼굴이다. 바로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50)교수다.

LA는 이상목 교수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연을 악연으로 여길지 모른다. 이 교수가 6년 전 LA에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 테스넬리 사막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질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교수가 불던 차량이 전복됐다. 이 교

수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사흘 뒤 깨어났을 때 이미 목 아랫부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이 교수에게 LA는 또 다른 생명을 준 곳이다.

이 교수는 “사고 당시 30~40분 만에 응급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에서 이같은 사고가 났다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회상하고 있다.

이날 이 교수가 방문한 랜초 로스 아미노스 재활 센터는 이 교수가 사고 직후 3주간의 재활 훈련을 받고 좌절 대신 희망을 얻은 곳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LA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한다.

한국으로 돌아간 이 교수는 이후 강단에 복귀했고 2008년부터는 정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통해 장애 대학생 이공계 분야 롤모델을 육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오스트리아에서

←QoLT 장애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인솔자로 LA를 방문한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 교수가 다우니시 랜초 로스아미노스 재활센터 앞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열린 강연회에서 한 청중이 세 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다운타운 LA’라고 대답했다. LA에서는 내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감박 잊을 정도”라고 말했다. “LA의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와 시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런 LA를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그는 8명의 장애 대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왔다.

이들은 서울대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지원센터 장애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됐다.

지난 2월 21일부터 11일 동안 UCLA 장애지원센터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 브라운 재활센터 등을 방문하고 재활 승마 아쿠아 테라피 등 장애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입김으로 작동하는 마우스 음성인식 프로그램용 마이크, 특수 태블로이드 PC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책을 읽고 채점도 한다.

이 교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혁명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뛰어난 IT 모바일 기술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미국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광현 동문 5월에 영문 소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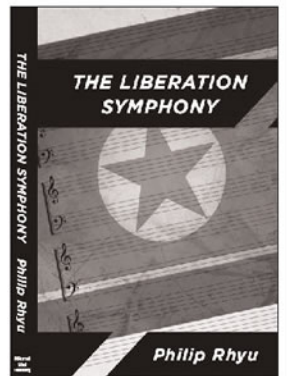
류광현(문리대 58, 영문 이름 Philip Rhyu) 동문이 ‘The Liberation Symphony (해방교향곡)’라는 타이틀의 영문 소설을 오는 5월 초 출판할 계획이다.

류광현 동문은 “6.25 때 납북된 실형 부부가 김일성에 의해 출세하게 되고 김정일에 의해 좌천되어 죽임을 당한 사실을 1998년 탈북한 조카로부터 처음 듣고 형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류 동문은 “소설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고증이 불가능하므로 소설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회화는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소설 속에 기술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계 인사들의 역할은 사실에 근거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류 동문은 또 “포악한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순수한 음악 예술인으로 마지막 생을 마친 형의 일생을 그리며 인류사상 가장 악랄한 독재정권을 전 세계에 고발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져 보다 광범한 독자층을 겨냥해 영어로 썼다”고 한다.

류 동문은 이어 “이 책을 1990년대 중반 4~5년에 걸쳐 아사한 약 250만 명의 북한 주민 희생자들에게 바친다”라고 책 서두의 헌사에서 밝혔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자신들의 우상화, 일인독재 체제 강화, 비개방과 군사 모



협주의에 광분하여 국력을 소모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엄청난 재앙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믿고 있다.

“The Liberation Symphony” is a stark chronicle of the horror of life under the criminal North Korean regime. I hope it will lead readers to persuade the leaders in our government to keep up the pressure until the Kim dynasty finally collapses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can once again join the free nations of the world.” By Dr. Bruce E. Bechtol Jr.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gelo State University Author, Defiant Failed State: The North Korean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merican Book Publishing’ 출판. 값 \$24.99.**

재미과기협 이호신 회장 학술대회 주도

“우리 동포 과학도들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네트워킹의 중요성 인식해야” 강조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이호신(사진) 회장이 지난 3월 16~18일 시카고의 로즈몬트에서 처음 열린 한인 유학생 과학기술 학술대회를 주도해 우리 동포 한인 1세 유학생들의 취업지원에 집중했다.

이날 미 전국의 각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150명의 우리 동포 과학도들이 이호신 회장과 만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과 취업훈련 전문 업체로부터 생생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는 우리 동포 학생들의 비행기표 일부와 호텔 비용까지 지원하는 파격적 대우로 학생들을 초청했다.

이호신 회장은 “개인별 실력차를 가능하기 어려운 문과와 달리 과학자들은 실력차가 눈에 보인다. 기초 실력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네트워킹에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위해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에는 정보가 빨라야 한다는 것.



이호신 회장은 이어 “산업과 과학의 융합이 최근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이 최근 제조업 살리기에 나선 만큼 관련분야 인재발굴도 많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최근 회원이 5천명까지 늘었다. 한인 유학생이 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취업이 불안정하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 자체 운영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망을 말했다.

현재 아이오와 대학 산업&환경 엔지니어링 교수로 재직 중인 이 회장은 모교 공대에서 학사,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텍사스대-오스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범식 교수 오를랜드 교외서 특강

‘국제정세와 기독교인의 자세’ 동북아시아 세력 변화도 설명

신범식 교수(모교 정치외교학부, 워싱턴대 방문교수)가 오를랜드 한인연합 감리교회(담임 이강원 목사) 초청으로 지난 3월 19일 ‘국제정세의 이해와 기독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남선교회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신범식 교수는 “영적싸움은 권력(권위)의 싸움을 비롯해 역사·정보·권력싸움으로서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말했다.

시에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의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일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신범식 교수는 “국제정치는 현실주의(토마스 홉스)·이상주의(칸트)·합리주의(그로티우스)등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관심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전공인 신범식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을 낙타된 실수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잃어버렸다”면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되찾으려면 북한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창하려는 중국을 견

←신범식 교수가 오를랜드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국제정세의 이해와 기독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제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러시아는 가스관 연결과 철도 개설, 플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북방 경제권 개발 등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워싱턴 대학교에 머물고 있는 신범식 교수는 “우리 민족의 반쪽 경제성을 하나로 회복하는 길은 복음의 서전을 막는 견고한 유라시아 진을 돌파,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 감당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 동안 특강을 한 신범식 교수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길 양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신범식 교수는 1년 동안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한 후 내년엔 모교로 돌아가 러시아와 국제관계, 세계지역 연구 과목 등을 강의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동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신 교수의 부인 김 내리씨의 마이클런 특별 연주가 있었다.***



양서명 박사 '선통연' 북가주 지부 발기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 운동 깃발, 창립 준비위원장에 선출

박세일(법대 66) 동문이 주축으로 미국에서 설립한 '선진통일 연합'이 북가주 지역에서 지부가 설립돼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21세기 신민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선진통일 연합(Greater Korea United, 이하 선통연) 북가주 지부 발기인 대회가 지난 3월 15일 프리몬트 당고 스키 레스토랑에서 열려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신민운동에 동참을 다짐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선진통일연합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20여 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성안평(산타클라라 한미노인 봉사회 수석 명예회장) 발기인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지난 해 6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선통연 창립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국에서도 선진 통일 운동이 필요하

다는 생각을 갖고 지부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안평 대표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과도한 포퓰리즘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선진화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이어 성 대표는 창립 준비위원장인 양서명 박사(임마누엘 메디컬 센터 마취과 전문의)를 추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양서명 박사는 "개성 출생으로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파에 편향되지 않게 통일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서명 박사는 고려대 의대와 서울대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후 의사로서 일을 해왔으며 인권 문제연구소장, 민주평통 자문

←프리몬트에서 15일 열린 선진통일연합 북가주지부 발기대회 참석자(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양서명 창립 준비위원장).

위원등으로 활동했다.

구은희 박사(선통연 사무처장) 사회로 열린 발기인 대회에서 박성진 교수는 선진통일연합 박세일 상임의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박세일 의장은 서면으로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 북한 자유화,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되찾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해외에서도 선진 통일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지역 인사로 박 장 변호사와 위제국 박사, 오영수 몬트레이 전한인회장, 이재의·지희석·박제환 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김이수 상하이역 평통회장과 박 우즈 목사의 축사도 있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등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지난 해 6월 창립된 '선진통일 연합'은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 공동체 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선진화 정책운동, 정치 개혁, 한반도 선진화 통일운동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가주 지부는 뉴욕·워싱턴에 이어 3번째로 발기됐으며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많은 동포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408)716-8443(구은희 박사)***

전성철 회장 LA서 시장 조사

"LA에도 CEO 교육과정 검토..." 진출 고려하겠다" 밝혀



"흔히들 CEO과정이라 하면 네트워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IGM(세계경영연구원)에는 그런 게 일체 없어요. 원우회장을 뽑거나 폭탄주 먹일 필요 없죠. 오직 경영과 관련한 실무를 가르치고 또 배울 뿐입니다."

한국의 유명 CEO 및 임원 교육기관인 IGM의 전성철 회장(사진)이 최근 LA를 방문했다. LA에도 IGM의 독특한 수업방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1세 기업인들이 많다는 지인의 소개로 시장조사차 방문한 것이다.

전 회장은 "IGM은 한국 8대 도시에 모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단체로 오곤 한다"며 "대학의 CEO과정은 이론 위주인데다 인간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겸한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기업교육에 눈을 돌린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모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MBA와 로스쿨을 마친 후 국내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한 전 회장은 세종대 부총장 경영대학원장 시절 CEO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기업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

게 됐다.

"2003년 IGM을 설립했어요. 처음엔 1개 과정 8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교육과정도 늘고 기업의 임원들도 참여가 점점 늘었죠. 이제는 20개 과정에 전국적으로 3천명 이상이 IGM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IGM은 실무를 갖춘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름까지 초단기 과정부터 평생 지식클럽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LA에서도 IGM 과정의 수요가 충분하다면 진출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전 회장은 이처럼 LA에서도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시카고 동문 일부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참가

시카고 동문중 일부가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신원 보장을 위한 시위대에 합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다른 교회와 단체에서 나온 분들과 연합해서,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

경찰은 멀찌감치서 시위대를 보

호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

한 참가자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목적을 높였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줄 믿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광근 박사 부녀 시과병원

부녀원장 진료 타주에도 입소문, 불니 분야 명성

김광근 박사(사진 왼쪽)-김소연 원장은 부녀가 함께 진료하는 치과병원으로 한민동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이 치과의로 성장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한민타운에서 '부녀 치과'로 잘 알려진 '김광근 김소연 치과'다.

김광근 박사는 40년 이상의 치과경력을 지닌 전문의다. 특히 '불니'에 관한 한 명성이 높다. 모교 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불니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치과병원 개업의로 수십년을 불니 연구와 임상에 바쳤다. 불니는 대부분 치과병원에서 시술하지만 사실 매우 까다로운 분야다.

김 박사는 '불니 고정장치' 등 독특한 시술로 불니를 불편



해 하고 꺼리던 환자들에게 만족스런 반응을 얻고 있다.

딸 김소연 원장은 USC 출신으로 7년 전 김 박사의 병원에 합류해 임상경험을 쌓았다. 2년 전부터는 풀타임으로 치과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원장은 USC에서 학부로 심리학을 전공해 특유의 섬세하고 자상한 진료로 환자들의 신

뢰를 받고 있다.

대화를 통해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치료를 하는데 아이들처럼 치과에 공포심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김원장만의 노하우가 특별하다.

김 박사 부녀치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들은 줄을 잇는다.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물론 라스베이거스·애리조나·하와이에서도 찾아온다고 한다.

김 원장은 "우리 병원만의 불니 치료를 받아본 환자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리퍼를 해줘 멀리서 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를니·크라운·브릿지 등 치과보철 전문으로 일반치과·소아치과·미용치과·신경치료·잇몸치료·미니 임플란트 등도 진료한다. 현재 특별 프로모션으로 검사 X-레이 클리닝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정상이 200달러에서 50달러로 할인 제공하고 있다.

한민타운 927 Crenshaw Blvd LA 문의 (323)930-2828 로 토요일도 오픈한다.***

오르가니스트 한남희 박사 리사이틀

오르가니스트 한남희(사진) 박사가 지난 3월 9일 12시 뉴포트 비치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 프레스비테리언 교회(600 St. Andrews Rd.)에서 오르간 리사이틀을 가졌다.

한남희 박사는 모교에서 영어 교육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도미해 UCLA에서 응용언어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유학과정 중에 파이프오르간에 매료되어 이 대학원 오르간 연주로 석·박사를 마쳤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미·유럽 연주자와 교수에게 사사한 한 박사는 오르간 솔로, 오케스트라 협연, 합창단 및 체임버 뮤지 연주 등 바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미 오르가니스트협회 전국 및 지방 컨벤션에서 공연했으며, 오렌지카운티의 르



네 헨리 시거스트룸 콘서트홀에서 오르간 콘서트도 초청 연주했다.

한남희 박사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오르간 솔로 및 듀오 연주를 담은 DVD가 곧 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으로 전통이 깊은 웨스트우드 장로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고 있다.***

최병구 동문 위싱턴 한국문화원장에

한국문화원장(공사참사관급)에 최병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을 임명했다. 최병구(48) 신임 문화원장은 1964년 강릉 태생으로 강릉고와 모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

다. 행정고시 제32회로 1990년 공직에 몸을 담은 후 문화부 영상산업과장, 저작권 산업과장, 국제문화 협력과장,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다.

주미 대사관 산하의 위싱턴 한국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 홍보원 소속으로 미 주류사회에 대한 한국문화 홍보활동과 이해 증진, 한미 양국간 우호 증진 및 화합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Special Guest: The New York Grace Women's Choir

호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수, 그라운 담장산, 내 맘의 강물, 은빛, 산촌, 산아! 창산에 살리라, 푸른 옷소매, 사월의 노래...

SCHUBERT, LARSON, WILLIAMS, KOREAN SONGS...



메소소프라노 김 효나
M. Soprano Hyuna Kim



소프라노 엄 나리
Soprano Na Li Youn



소프라노 유 혜경
Soprano Clara Yu



소프라노 조 두름
Soprano Fareem Jo



테너 김유종
Tenor Yujong Kim



바리톤 차정철
Baritone Jeong Chul Cha



피아노 이진옥
Piano Jin Ok Lee



테너 서병선
Tenor Byung Sun Suh

리의 한국 가곡과 세계 가곡의 아름다운 선율들을 독창과 중창으로 불러준다.

또한 'The New York Grace Choir(단장 안성순)'가 특별 출연해 멋진 화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뉴가현'은 "3대 독재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탈북자에 대해 더욱 기복하고 잔인해져 북한 교외부 50여 명을 중국으로 압박해 탈북자들을 마구 잡아들여 처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4년간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나선 무고한 탈북자들을 20여만 명이나 강제 복속해 처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서 얻어지는 성금은 그동안 1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구출해내고 100여 명을 미국으로 망명시킨 천기원 선교사를 돕는 '두리 하나 USA'로 전달된다고 한다.***

서병선 동문 탈북난민 돕기 음악회

'뉴욕 예술가곡 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가 5월 20일(일요일) Flushing의 JHS 189 Auditorium에서 제25회 '탈북 난

민돕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에는 뉴욕 음악계 정상급의 모교 출신 음악도들(사진 참조)이 참여해 성가는 물론 우

산말환·정연두·고태화 동문 개인전

▶**산말환 동문**= 서양화가 산말환 동문이 지난 3월 2-11일 LA에서 초대전(사진)을 개최했다.

'나무처럼! 나무같이!'란 제목에서 불안하고 지친 일상의 현대인에게 "나의 나무들은 아무 의심없이 집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신선한 숲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당신의 호흡이 되고자 한다"는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 작품을 보였다. 산말환 작가는 모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31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그룹전 및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경기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심사위원이다.

▶**정연두 동문**= 정연두 동문의 사진전이 뉴욕 맨하탄 첼시의 타나 김 갤러리(545 W.25th St)에서 지난 3월 열렸다.

작가는 모교 미대 조소과를 졸업, 조각가로 출발했지만 사진 작가로 번신해 활동, 영상 작업도 선보이며 모마(MOMA)에 영상물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가 소장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스하이츠, 32가 한인타운, 차이나 타운 등 뉴욕시 이민자 밀

집지역 6곳을 담은 설치 영상 '식스포인트(Six Points)'와 함께 대도시라는 각박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진 작품 '남서울 무지개(Southern Rain Seoul)'를 보여주었다.

▶**고태화 동문**= 워싱턴과 뉴욕 등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판화작가 고태화 동문이 지난 3월 메릴랜드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대학 에버그린 뮤지엄 & 라이브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고태화 동문은 '에버그린의 자장가(Lullaby in Evergreen)'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선보였다.

고 동문은 "절기와 자르기, 뒤집기, 겹치기 등의 판화 과정을 통해 이미지들이 점점 변형되고 자신만의 형체를 갖게 된다. 뮤지엄 공간에서 정형화도, 고정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작품은 판화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고태화 동문은 모교 미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판화과 졸업 후 메릴랜드대에서 판화와 조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방은호(약대 43) 동문 부인 김경애 집사 3월 5일.

▶윤정숙(약대 50) 동문 부인 지난 3월 2일.

▶한기철(상대 52) 동문 지난 3월 2일.

▶채규철(의대 53) 동문 부인

채(성)희모 권사(문리대 53) 지난 3월 30일.

▶김재술(약대 58) 동문 장인(정승면 집사) 2월 5일.

▶김용국(의대 58·필라 동창회 전 회장)동문 2월 11일.

▶박종수(공대 60) 동문 Salt Lake city, UT서 4월 11일.

조성환 교수 석사과정 한국어 지도



풀러튼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가을학기부터 교회 음악과정 통역서비스

LA 풀러튼에 있는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총장 잔 데리)'가 올 가을학기 개강하는 교회음악 석사학위 과정 전 과목에 대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음악 석사 대학원 과정은 14명으로 구성된 신학부 교회음악과 교수 및 강사진 중 한인 교수를 제외한 외국 교수 강의는 조성환 교수(음악대학 및 대학원 학과장)

와 전문 통역사 2명이 통역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인들에게 앞서 있는 교회음악과 교편음악, 현대음악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어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조성환 교수(사진 왼쪽)는 "가끔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통역인이 통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역사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역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교수는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0년부터 85년까지 예수 전도단 찬양집회를 인도했다. 예수 전도단 찬양집 1집부터 3집까지 편집을 책임지기도 했다.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6년부터 호프대학의 정교수로 일하고 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2년째 예배음악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WA·NY·LA에 각각 동문 외교관 부임

워싱턴 총영사관 김준구 참사관 부임

워싱턴 총영사관에 김준구 참사관이 지난 2월 부임했다. 앞으로 영사 업무를 총괄할 김 참사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북미 2과장, 주 UN 대표부,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1992년 외교부에 입부(외시 26회)했으며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참사관은 "동포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친절한 영사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총영사관 김성열 상무관 부임

뉴욕 총영사관에 김성열(42) 상무관이 지난 2월 부임했다.

김성열 신임 상무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필라델피아 등 동부 5개주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관은 "일단은 FTA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앞으로 섬유와 자동차 부품사업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과 수출, 투자 등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인 기업들이 FTA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상무관은 "한국 경제와 한인 경제, 특히 뉴욕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 곧 한인 기업인들과 만나 업종과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실질적으로 한인 기업들이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무관은 모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7년 행정고시에 합격,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국 서기관과 청와대의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등으로 일해 왔다. 또 뉴욕주립대(SUNY) 버팔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뉴욕 변호사이기도 하다.

LA 총영사관 방기선 부총영사 부임

LA총영사관에 방기선(46) 부총영사가 지난 2월 부임했다.

←지난 2월 부임한 워싱턴 총영사관 김준구 참사관(왼쪽)과 뉴욕 총영사관 김성열 상무관

방기선 부총영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교역에서 교두보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고 함께 고민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부총영사직이 개방형 직위제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방기선 부총영사가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총영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방 부총영사는 "LA가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면서 "한·미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역할을 다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 부총영사는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91년 당시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제정분야에만 있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외도를 하게 됐다. 바로 직전에는 기획재정부 북미예산과장을 지냈다.

"총영사관은 종합적으로 다 이뤄지는 곳입니다. 미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예산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꿈이 외교관이었던 것도 부총영사직에 도전한 한 요인입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권 회장 한민족 구국 기도회 주도

남가주 법대 동창회의 이재권 회장(법대 56·위 오른쪽 사진)이 준비위원장으로 지난 3월 28일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실시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국 기도회'가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이재권 위원장은 "LA지역 종교계와 사회 인사 300여 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친북·좌파·종북

및 반미 세력들이 더이상 거짓 선동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 기도회는 남가주 한인복사회,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남가주 한인장로연합회, 남가주 기독교실업인연합회 등의 관계 인사 주축로 열렸다.



이 위원장은 "이 기도문의 초안을 작성한 이정근 목사님은 모교 사대 출신의 동문이며 장소를 제공한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님 역시 문리대 출신으로 동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의 구국 기도문을 요약한 것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가슴깊이 품고 기도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옵소서(중략). 우리들은 먼저 나의 조국 한반도와 미국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선거 후원

김진식(공대 78년 졸) 동문의 장남 김성섭(Justin)이 연방 하원의원(남가주 31지구, Rancho Cucamonga, Fontana, San Bernardino, Redlands, Colton, Upland, Grand Terrace)에 처음 도전해 도움을 바라고 있다.

후원해 주실 동문은 www.justinforcongress.com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광고 32면>

<구철회(의대 78)>

한국정원 설립 서명운동

LA의 '한국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최초의 한국 정원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재단은 'Los Angeles County Arboretum & Botanic Garden' 내 5.5 에이커의 부지에 한국 전통 정원과 문화 공간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동의하는 동문은 <http://bit.ly/krgnrdn>에서 서명할 수 있다. 재단 웹사이트는 www.kchfa.org <제명해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중략). 특정한 이념을 강조하고 특정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제화시키는 범죄행위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배금주의와 향락 문화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결혼과 가족제도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뤄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무모한 전쟁과 폭력과 증오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을 확대하는 정권이 어서 속히 무너지게 하시옵소서(중략).

한반도와 미국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험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Korean Christian Diaspora들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진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세차게 싸워 영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출해 낸 엘리야 같은 전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유성 서예협회장 뉴욕서 서예전

서예 현대화운동 뉴욕에서 다시 꽃피다—동서양작가 작품 독창속에서 독특한 조화이뤄—

국제서예협회(Art of Ink in America Society)가 Manhasset의 셸터락 아트 갤러리(Shelter Rock Art Gallery at Unitarian Universalist Congregation, 48 Shelter Rock Rd, Manhasset, NY 10030)에서 지난 2월부터 서예전을 개최했다.

이 서예전은 'Art of Ink in America 2011-12'의 타이틀로 열려 지난 2월 대단원의 막을 올리므로써 서예 현대화 운동이 뉴욕에서 다시 꽃피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6일의 오프닝 리셉션에는 작가들의 서예 시연과 작가들과 대화시간(소제목 발표와 질문응답)을 따로 시행해 초관원을 이룬 참관인들로 열띤 호응을 자아냈다.

전통서예에 익숙한 동양인 관객에게는 다소 서툰 모습이었으나, 현대적 감각이 새롭게 표현되는 추상적 기법의 묵향 예술은 정적이 아니라, 역동적 진취성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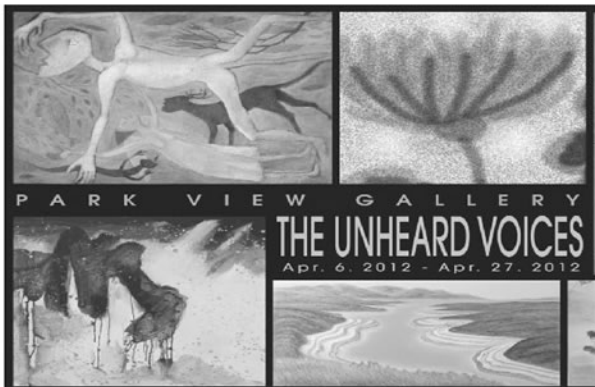
이같은 현대서예는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철학·미적 감각을 그대로 담아 새로운 창작예술로 계속 호응도를 높이며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번 Manhasset서예전은 뉴욕과학관에서 개최한지 6년만에 다시 돌아온 협회전이며, 'Brushed Voices(붓으로 표현된 목소리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대만·중국·한국·일본·프랑스·이태리·루마니아·미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1994년(당시 회장 김순옥·의대 46)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시작한 이래, 그 동안 본 협회에서는 동아시아·유럽·미주 등지에서 서예전을 가져왔다.

이 전시회는 4월 4일까지 열렸으며 Program과 Newsletter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www.facebook.com/artofinkinamerica)

윗 사진은 국제 서예협회 이유성 회장이 서예전이 열린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직접 서예를 시연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유성(사대 57) 국제 서예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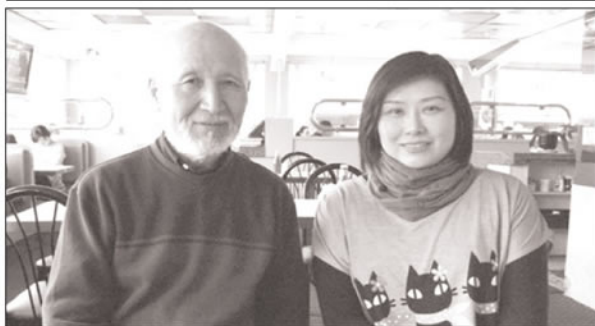
Park View Gallery중견작가 6인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창조적인 소리들'을 타이틀

LA의 'Park View Gallery'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창조적 소리들(The Unheard Voices)'이라는 제목으로 세번째 그룹전을 열었다.

을 열었다.

지난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작가는 김진실·박다예·변정국·영춘복·주선희·홍선애씨 등 중견작가 6인으로 이들의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지현 악장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잉글우드 제일장로교회서 "힘든 이민생활 청량제 되길"

지난 4월 14일 잉글우드 제일장로 교회(150 E. Palisades Ave. Englewood)에서 버겐심포니 오케스트라 '2011-12 시즌 두 번째 연주회'가 열렸다.

이지현 악장과 최우명 지휘자는 연주회가 힘든 이민생활의 청량제가 되길 기원했다.

경남창원대 교수로 대구시향 악장을 역임한 김한기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의 작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변주곡과 '동무생각' 변주곡이 연주

김진실씨는 전통산수화 기법으로 자연을 묘사한 작품을 보이며 박다예씨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단색 작업을 통해 내면의 정신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변정국씨는 삶의 허상과 허실을 자신만의 독특한 색과 선으로 화폭에 풀어놓았다.

"1982년부터 잉어의 신비한 힘에 끌려 계속 잉어를 그려왔다"는 영춘복씨는 이번 전시회에도 잉어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았다.

주선희씨는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주변 사람들 성격의 주역을 역사적 인물들 그리고 자연의 신비와 위대함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홍선애씨는 무한한 우주 속에 전개되는 신비한 아름다움과 초인적 파워를 '코스믹 드림즈(Cosmic Dreams)'라는 제목으로 대형 화폭에 선보였다.

전시회 주소: 2410 W. James M. Wood Blvd. LA. 문의: 홍선애(음대 70) 213-503-6964 ***

된 연주회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음악회로 꾸며졌다. 또 유명 첼리스트 라몬 라마르산이 엘가의 '첼로 콘체르토 E 단조 Op.18번',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이 연주됐다.

최근 버겐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새 악장으로 추대된 이지현 동문은 "완성도 높은 연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악장은 모교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후 1996년 도미해 뉴잉글랜드 콘서트마스터와 롱지(Longy) 음대를 나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SUN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버겐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한인 단원도 모집하고 있다. 악기 부문의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겐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지현 악장(오른쪽)과 최우명 지휘자.

<4월과 Shakespeare>

'Ariel Set Free'



배효식 (문리대 52)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교수

Where the bee sucks, there suck I (벌이 꿀을 빠는 곳, 그곳에서 나도 꿀을 빨다네)
In a cowslip's bell I lie;
(종처럼 생긴 앵두꽃 속에 누워)

There I couch, when owls do cry (올빼미가 울 때 그곳에서 웅크려 눕는다네)
On the bat's back I do fly
(박쥐 등을 타고 나는 난다네)

After summer merrily. (여름을 따라 즐겁게)
Merrily, merrily, shall I live now,
(즐겁게, 즐겁게 이제 나는 살아가리)

Under the blossom that hangs on the bough! (나무 가지에 매달린 꽃 송이 아래에서)

이 시는 천재적 문호 William Shakespeare의 'The Tempest'라는 희곡 제5막 제1장에 나오는 시요, 노래다.

Shakespeare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뛰어난 작가로 1564년 4월 26일 Stratford-On-Avon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출생은 4월 23일로 추측한다. 관습에 따라 출생한지 3일이 되면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그가 탄생한 마을은 위대한 천재가 태어난 곳으로 문학의 성지가 되었다.

소년 시대 그는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18세 때 자기보다 8세 위인 Anne Hathaway와 결혼을 하게 됐다.

1585년 20세가 됐을 때 그는 London으로 가 영국 배우가 됐다. 그리고 26세가 돼 영국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비극적인 소재와 희극적인 소재를 다루며 영국 작품을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사극 쪽으로도 뛰어난 감각으로 작품을 남겼다.

그는 1616년 4월 23일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날자와 세상을 뜬 날자가 같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 아니면 천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떠나는 것일까.

이 시 'Ariel Set Free'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Ariel은 연극에 나오는 요정이다. 요정은 여성 모습이 보통인데 Ariel은 남성이다.

그는 마귀할멈 Sycorax에 잡혀 악마 소나무(Cloven Pine) 속에 12년 동안이나 감금돼 있는 것을 Prospero라고 하는 힘센 요정이 구해준다.

그러나 Ariel은 자기를 구해준 Prospero의 약속을 믿고 그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

'The Tempest'의 이야기는 폭풍에 휩싸여 나부끼는 한 척의 배로부터 시작된다.

배에는 Miran의 왕 Alonso, the King of Naples, 그리고 그의 아들 Ferdinand, 그밖에 많은 백작들이 타고 있다.

이 극에서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Miranda란 여여쁜 여인이 있는데 그 배의 파선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 폭풍은 자기의 아버지가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녀 아버지의 이름은 Prospero인데 그는 자기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Prospero와 Miranda 부녀는 Milan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사치스럽게 살아 왔다. 그 이유는 Prospero가 Miran의 백작으로서 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을 Prospero의 동생이 배를 태워 추방시킨 것이다. 그 당시 Prospero는 Ariel 요정을 불러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한다.

Ariel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으로 Prospero의 명령을 받아 폭풍에서 고난 받은 나폴리의 왕(The King of Naples) Alonso와 배에 탄 사람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나폴리 왕을 죽이라는 음모와 다른 모든 음

모들을 잘 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자기의 상관 Prospero에게 보여주며 죽은 줄 아는 왕의 아들 Ferdinand와 Miranda 두리가 사랑에 빠져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며 위대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다.

Prospero는 다른 부하 Caliban을 그의 딸 때문에 만나려 할 때 Miranda가 반대하며 "Caliban은 Monster(괴물) 같은 놈으로 흉미 없는 놈"이라고 하자 아버지는 곧 Caliban을 종으로 격하시킨다.

화가 난 Caliban은 다른 새 주인을 만난다. Alonso 왕의 술 따르는 관리 Stefano를 만나 Prospero의 잔인성을 말하며 그를 죽이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섬나라를 다스리라고 권한다.

이렇게도 Prospero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으나 그는 원수 모두를 초청해 모두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된다.

이 시는 Ariel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요정 Ariel의 해방의 기쁨의 노래라고 하겠다.

이 시의 주제는 죄와 허물과 고뇌의 삶 속에서 비참하게 헤메는 인간이 속박의 굴레에서 해방돼 새로운 삶을 즐기는 모습을 깨닫게 하는 시다.

창조주가 만든 자연, 나아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한 다음 이 시의 주인공 Ariel이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

Shakespeare의 작품들(도표 참조)과 간단한 작품 해설을 곁들인다.

The Tempest Summary: A Magical Storm

The Tempest begins on a boat, tossed about in a storm. Aboard is Alonso the King of Naples, Ferdinand (his son), Sebastian (his brother), Antonio the usurping Duke of Milan, Gonzalo, Adrian, Francisco, Trinculo and Stefano.

Miranda, who has been watching the ship at sea, is distraught at the thought of lost lives. The storm was created by her father, the magical Prospero, who reassures Miranda that all will be well. Prospero explains how they came to live on this island: they were once part of Milan's nobility - he was a Duke and Miranda lived a life of luxury. However, Prospero's brother exiled them - they were placed on a boat, never to be seen again.

Prospero summons Ariel, his servant spirit. Ariel explains that he has carried out Prospero's orders: he destroyed the ship and dispersed its passengers across the island. Prospero instructs Ariel to be invisible and spy on them. Ariel asks when he will be freed and Prospero tells him off for being ungrateful, promising to free him soon.

Caliban: Man or Monster? Prospero decides to visit his

초기 이만생일



노인규 (의대 52)

미 시민권자인 아내의 언니가 우리 다섯 가족의 미국 이민을 위해 호적등본을 보내라기에 그렇게 해서 약 1년 후인 1977년 1월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생활이 시작됐다.

미국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가용이라기에 곧 차를 구입하게 됐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자가용이 귀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차가 있으니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 수 있어 자가용 생활이란 참으로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만끽했다.

미국은 외국의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미국의 면허증을 따기까지 대학을 다시 다니는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나이가 들어 시험공부의 고스트러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심적 고통을 많이 받은 시기였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느질,

백화점 점원, 주유소 직원 등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은행장고가 바닥날 무렵에는 무료 식품배급도 받아보았으나 내용이 버터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지속되지 못했다. 오죽하면 길가에 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실제로 길을 가면서 땅바닥을 살폈으나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하루 세 끼 먹지 못한 적은 없었다.

살고 지낸 집은 주로 아파트였으며 잠시 친척집에서도 얹혀 살았다. 미국의 모든 집에는 목욕시설이 있으니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곤하기만한 이민생활 중 그래도 잠시 스트레스를 푸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나만 때고 가족들은 모두 통과됐다. 내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자동차 속도위반 사실이 있다고 답한 데 있는 것으로 짐작됐다.

그후 약 10년이 지나 내가 다시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는 속도위반 사항이 삭제돼 있었다. 따라서 나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내가 겪은 이민생활은 한편으로는 형편에 따른 일시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족 여행도 하는 즐거움 것이었다고 본다.***

other servant, Caliban, but Miranda is reluctant, describing him as a monster. Prospero agrees that Caliban can be rude and unpleasant, but is invaluable to them because he collects their firewood. When Prospero and Miranda meet Caliban, we learn that he is native to the island, but Prospero turned him into a slave raising issues about morality and fairness in the play. Prospero reminds Caliban that he tried to violate his daughter!

Love at First Sight

Ferdinand stumbles across Miranda and, much to Prospero's annoyance, they fall in love and decide to marry. Prospero warns Miranda off and decides to test Ferdinand's loyalty. The rest of the shipwrecked crew are celebrating their survival and grieving for lost loved ones. Alonso believes that he has lost his beloved son, Ferdinand.

Caliban's New Master

Stefano, Alonso's drunken butler, discovers Caliban in a glade. Caliban decides to worship the drunken Stefano and make him his new master in order to escape Prospero's power. Caliban describes Prospero's cruelty and persuades Stefano to murder him by prom-

ising that Stefano can marry Miranda and rule the island. The other shipwreck survivors have been trekking across the island and stop to rest. Ariel casts a spell on Alonso, Sebastian and Antonio and derides them for their treatment of Prospero. Gonzalo and the others think that the spell-bound men are suffering from the guilt of their past actions and promise to ensure their safety.

Prospero finally concedes and agrees to the marriage of Miranda and Ferdinand and goes off to foil Caliban's murderous plot. He orders Ariel to hang out beautiful clothes to distract the three fools. When Caliban and Stefano discover the clothes, they decide to steal them - Prospero arranges for goblins to "grind their joints".

Prospero's Forgiveness

Prospero assembles his enemies: Alonso, Antonio and Sebastian. After chastising them for their past treatment of him and his daughter, he forgives them. Alonso discovers that his son Ferdinand is still alive and in love with Miranda. Plans are made to return to Milan. Prospero also forgives Caliban and grants Ariel his freedom.***

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들

Comedy	All's Well That Ends Well. As You Like It. The Comedy of Errors. Cymbeline. Love's Labours Lost. Measure for Measure. The Merry Wives of Windsor. The Merchant of Venice. A Midsummer Night's Dream. Much Ado About Nothing. Pericles, Prince of Tyre. Taming of the Shrew. The Tempest. Troilus and Cressida. Twelfth Night. Two Gentlemen of Verona. Winter's Tale.
History	Henry IV, part 1. Henry IV, part 2. Henry V. Henry VI, part 1. Henry VI, part 2. Henry VI, part 3. Henry VIII. King John. Richard II. Richard III.
Tragedy	Antony and Cleopatra. Coriolanus. Hamlet. Julius Caesar. King Lear. Macbeth. Othello. Romeo and Juliet. Timon of Athens. Titus Andronicus.
Poetry	The Sonnets. A Lover's Complaint. The Rape of Lucrece. Venus and Adonis. Funeral Elegy by W.S.

판악세대/Acro 광장(법정일화) <> 이기고도 찻찻한 회색 법리(法理)의 세계

“세상은 꼭 정의만 승리하진 않더라!”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진실필승(眞實必勝)? 항상 진실과 정의는 승리하는 것인가? 선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인가?

불행히도 세상은 그렇지 않고 흑과 백의 구분도 모호한 회색 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어느 쪽이 거짓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 법정일화 시리즈 시작하면서 밝혔듯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명칭, 내용들은 소송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변경,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지자 주)

캄튼 지역에 있는 어떤 가게를 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판 사람은 매매 대금을 다 지불받지 못했다. 산 사람은 다 지불했다. 이 상반된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3자가 들어 보면 가장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일 터, 돈을 주었으면 주었을 것이고 안 주었으면 안 주었을 사건. 둘 중의 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아야 하는 사건.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 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둘 중 하나여야 하는 이 간단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였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매매가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총 지불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가게를 산 사람이었는데 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총 매매 가격은 9만 달러. 에스스로 서류에는 매매가격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에스스로를 열기 직전 판 사람이 매매대금 지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산 사람의 친구가 총 9만 달러, 장 당 1만 달러로 해서 9장의 수표를 써 주었습니다.

수표는 그 사람의 비즈니스 수표였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이 에스스로 오픈과 동시에 현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사람이 또 현금으로 2만 5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총 4만 5천 달러 지불).

그런데 이번엔 수표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만 5천달러

라 수표를 조깅 수도 없었고 대신 영수증을 4만 5천 달러로 받았습니. 그때까지 지불했던 돈 전체에 대한 영수증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1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합계 2만 달러를 또 지불했습니다(이때까지 총 6만 5천 지불).

그런데 9장의 수표를 주었던 산 사람의 친구는 이러한 지불 사실을 모르고 2만 5천 달러를 또 지불했습니다(이때까지 총 9만 달러가 지불됐으므로 매매대금 완납).

이렇게 지불했을 때 친구는 남은 수표를 모두 돌려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 본인의 2만 달러 지불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친구는 갚아야 할 2만 달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7장의 수표 중 단지 5장의 수표만 되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매매대금은 완납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판 사람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총 매매가격이 9만 달러가 아닌, 13만 5천 달러라는 것입니다. 에스스로에 나와 있는 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니며 차액은 에스스로 바깥에서 받기로 돼 있었고

서 어떤 서류를 가져 오라고 요청했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겠다는 서면 선서하에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 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면 거짓말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또한 왜 그 서류가 그전에는 제출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곤혹스런 일이 생기므로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판 도중 내 옆에 앉아서 판사가 보라고 그 서류를 세워서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빼앗고 싶었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재판 도중에 그 서류를 뺏을 수도 없고 해서 짐짓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판사가 이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신빙성에 또 한번 의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은 판 사람대로 문제가 있었으니, 지불을 요구한 시기가 증언할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언

“에스스로상에는 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놓은 뒤 실 가격과 에스스로 금액의 차액은 에스스로를 통하지 않고 지불되곤 하는 것이 한인사회에 만연...”

내용에 있어서도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불 못 했었다는 금액조차 틀려서, 그의 변호사가 “내 의뢰인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라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우스꽝스런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하고 부정확한 증언은 제 의뢰인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충분한 질문도 못하고, 서둘러 끝을 내야 했습니다. 자세한 질문을 했다가는 도대체 어디로 뻗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어서였습니다.

영어도 잘 하고 젊어서 소위 Star Witness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동안 제가 시킨 증언 준비는 어디로 다 내다버렸는지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기억 안나는 것으로 일관하니 도저히 제가 생각한 재판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한 증언의 일관성이 없으면 공격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냈을텐데 상대방 변호사가 의외로 쉽게 넘어가더군요.

다행히 이 의뢰인의 증언 전에, 돈을 대납해 준 그의 친구가 저의 걱정과는 달리 비교적 또렷하게 증언을 해 주어 이 친구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3일 간에 걸친 재판 종결 후 바로 판결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산 사람에게

동문 시 감상

봄이 다가온다



김태환(법대 46)

봄은
남쪽에서
실바람 타고
아지랑이 앞세우고
아련히 다가온다

봄은
바구니 옆에 끼고
나를 깨는 여인의 손 끝으로

살면서 다가온다

봄날
저 건너 강변에
늘어진 수양버들가지는
여인의 보드라운 머릿결이오
고운 치마자락이로다

봄은
정려(精鍊)하게
정념(情念) 속에서
소리없이
다가와 속삭인다

‘봄이 온다’ 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에스스로는 계약서로는 너무 영성하고 양 당사자 자신이 내용도 모르고 안 지킨 부분도 많아 서면 계약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변호사가 만든 서류도 아니고 에스스로 회사에서 적당히 그 전에 써 왔던 것 베껴서 한 것이었는데 판사는 너무

그래서 원고(판 사람)패소, 피고(산 사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승소 판결이므로 피고측 변호사비를 원고가 지불하라는 내용을 저는 판사에게 신청해 판결문에 추가시켰습니다.

정황상 판 사람의 주장이 맞을 것 같았고, 제 의뢰인의 증언이 오락가락해서 패소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변호사비가 지 받아내며 이겨서 기분이 좋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과연 저의 의뢰인이 옳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오늘날까지도 마음 한 구석엔 찻찻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꼭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는 회색시대에서 사는 인간의 삶. 그래서 더 더욱 고달픈 것인가?

끝내면서 드리는 나쁜 변호사 농담 하나.

4년에 걸친 긴 재판이 자신이 맡은 의뢰인의 패소로 끝이 났다.

패소 변호사: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입각하여 항소하겠습니다.”

판사: “새로운 증거가 뭐요?”

패소 변호사: “4년 재판 후에도 아직도 제 의뢰인에게 돈이 \$1,000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그림= 박준창 화백





<동창회 소식> 뉴욕 악대 동창회

대동연회장서 '신춘 동문의 밤'

뉴욕 지역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 이용대·21회)의 신춘맞이 '동문의 밤'이 지난 3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후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서 열렸다.

뉴욕·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약대 동문들이 높은 참여의식과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90여 명이 모인 이번 '동문의 밤'에는 이용대 회장의 21회 동기간 강한길(LA 거주) 동문과 김무형(워싱턴 DC. 거주) 동

문이 멀리서 참가하여 뉴욕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골든 클럽' 회장인 이준행(공대 6회) 동문과 미주 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구(농대 18회) 동문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이용대 회장은 전임 회장인 서정웅(21회) 동문과 만년 총무인 금영천(26회)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각데일과 디너 후에 가진 연회

↑ 뉴욕 지역 약대 동문들이 게스트로 참여한 동문들과 연회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이용대 회장이 서정웅 전임 회장과 금영천 만년 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행사는 전문 엔터테이너 박진현씨가 사회를 맡아 벨리댄스 공연, 라인댄스, 쿼츠, 노래자랑, 밸런트 쇼 등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소프라노 박정화씨가 특송을 불러주었다. 또한 이진구 동문이 자신의 특기인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다.

한편 뉴욕의 약대 동문회 차기 회장은 현재 부회장으로 수고



중임 이승우(21회) 동문이 승 장작을 맡게 된다. 제할 예정이다.

또한 김창수(22회) 동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 동창회 회

<글= 김창수(22회) 편집위원>
<사진= 손갑수(17회) 동문>

하틀랜드 동창회

세계인 동문 신간 출판기념회

Heartland 동창회가 최근 서제션(Therese Park, 읍대 59) 동문의 신간 'The Northern Wind'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축하를 나누었다.

세계인 동문의 출간은 이번이 세번째로 이 소설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내용을 영문으로 출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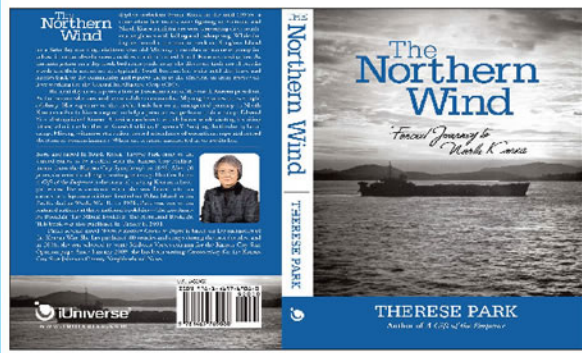
서제션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한 뒤 Cellist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은퇴하신 후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첨부한다.

Synopsis of The Northern Winds Therese Park (June 1987) Eighteen year-old Hahn Miyong, originally from North Korea, lives with a

group of 80 young women involved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rogram on Kanghwa Island. While doing her laundry on a Saturday morning at a remote creek surrounded by trees, she notices a unit of armed South Koreans passing her, talking, and then gathering on a dry creek bed about twenty yards away. She finds the men's appearances, their northern accent, and their use of certain words not typically South Korean. ... (중략)

<Heartland 동창회장 구명순>



시카고 세종문화회

제3회 국제 작곡경연대회 진행중

시카고의 '세종문화회'가 '제3회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를 진행 중이다.

'Sejong Prize'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 국제 작곡대회는 세계의 기성 작곡가들이 대상이며 한국적 음률의 바이올린·피아노·첼로의 삼중주곡이나 그중 두 악기의 이중주곡을 작곡해 제출해야 한다(6월 30일 마감).

곡은 전문 연주자들이 대중을 위한 일반 음악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격조높은 곡을 요구하고 있다(연주시간 12분 미만).

1등은 1,500달러 상금 외에 세계적인 링컨 트리오(www.LincolnTrio.com)가 수상곡을 WFMT Classical Music Radio Station에서 연주하는 부상이 따른다.

김미숙(음대 82, Wheaton College 작곡과 교수)동문이 작곡한 '용혜야의 기쁨(Joy of Ong-he-ya)'은 매년 경연대회 지정곡이며 Chicago의 WFMT Radio 방송, Music In The Loft의 Young Award Winner's Series에서도 연주되고 있다.

한국의 음률을 타민족 작곡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새야 새야 과당새야, 새타령, 청성곡, 상령산, 몽금포 타령, 창부타령, 시조창 청산리 등 10개 한국 곡들을 세종 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이 곡들로 악보·가사·곡 해설을 읽어 한국적 음률의 작곡에 도움주고 있으며 타민족들이 한국적 요소의 현대곡들을 작곡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1·2회 대회는 동문으로 Pacific Rim Music Festival의 director인 UC Santa Cruz 작곡과 김희경 교수께서 대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었다. 이번 3회 대회는 Univ. of Chicago의 Schulamit Ran교수가 대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음대 동문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여해 아름다운 한국의 음률을 서양 음악주류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란다.

작곡경연대회의 자세한 요강 및 한국 전통음악 해설은 세종 문화회 웹사이트에 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composition/current)

세종문화회는 비영리 단체다. 문의는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나 세종문화회 이사장 김호범(상대 69입, 312-497-3007) 또는 사무총장 박종희(의대 69입, 312-203-5587)에게 해주시 바란다.***

<김호범 이사장>



이 달의 초대석<5>Thomas Jefferson대 의대 명예교수 정구영 박사

Thomas Jefferson대 의대 200년 사상 단 3인만 선정된 ‘저명한 교수’ 중 한 분

의대 본관에 초상화 헌정, 의학 전문서 100권 출판, 연구 논문 650편 발표, 세계 학술회 강연 350여 회

수재(秀才) 중에는 마시고 즐기는 데도 달통한 분들이 종종 있다. ‘영웅 호걸은 주색에도 밝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Thomas Jefferson대 의대 명예교수로 현역 시절 심장내과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정구영(의대 57년 졸·미국명 Edward Chung) 박사가 그런 인물 중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1969년 11월 ‘Digitalis Intoxication’이라는 제목의 첫 의학서 출판 이래 의학 전문서 100권 저술에 이종 32권은 영어 외 12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 대부분이 미 심장학회 추천 도서로 내과 전문의·수련의·의대생들의 필독서. 의학 연구 논문 650편 발표. 23개 의학 전문지 편집 및 감수위원. 세계 각국 의학 학술회에서 350회 강연’.

의학 부문에 기네스(Guinness) 기록이 있다면 단연 정구영 박사 차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 뿐일까. 또 있다. 지난 1990년대 ‘14명의 가장 뛰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의 한 사람(One of the 14 Most Prominent Asian-American)’에 선정됐다. Jefferson대 의대에서는 현직 교수에게 주는 최대 영예인 ‘Distinguished Lectureship’을 주었다.

게다가 이 대학 200년 역사 이래 단 3명에게 수여한 최고 영예인 ‘Distinguished Professorship’에 선정됐다. 이 영예는 이 대학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칭송되는 호칭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학은 정구영 박사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그의 초상화를 제작해 1998년 4월 8일 ‘Portrait Presentation(초상화 헌액)’ 기념식을

가졌다.

이 초상화는 현재 Jefferson대 의대 건물 내에 걸려 있어 미 주류사회에 한국인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미 전국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정 박사의 일갈은 본 적이 없어도 ‘Dr. Edward Chung’그 이름만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 번도 어려운 간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야 했던 것은 정구영 박사에게는

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진단해 컴퓨터 심장 진단법을 연구개발해서 환자에게 적용시켰지요.”

이 결과는 휴렛 팩커드사와 제휴해 Stress ECG Testing Chung Protocol 또는 ECG Program-Chung’s Diagnostic Criteria라는 상품으로 생산중이다. 지난 1997년 나온 ECG Diagnosis and Self Assessment CD-ROM은 1천400건의 심전도가 포함, 이 역시 세계적 기록이다.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 ‘Mayo Clinic’에서의 두 차례 간 이식 수술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자원해서 모여 성심성의를 다한 수술과 치료, 한 평생 더없는 보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다.

1931년생인 정구영 박사의 본적은 경남 창원이지만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성장했다.

부친이 한국인 최초의 의학박사로 서울대 의대 정일천 교수다. 정일천 교수는 나중 부산의대를 창립, 초대 학장을 역임한 분이다.

정구영 박사가 의대로 진학한 것은 역시 가풍(家風)이라고 할 것이다. 일가친척 중 의사가 35명으로 웬만한 종합병원을 차릴 수 있을 정도다. 정 박사 7형제중 의사는 4명으로 나머지 3인은 음악가다.

정 박사는 술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장녀는 사위와 함께 의사, 아들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정구영 박사를 편집주간이 전화 인터뷰했다.

심장내과에서 ECG(심전도)와 Arrhythmia(부정맥) 분야를 전공 하셨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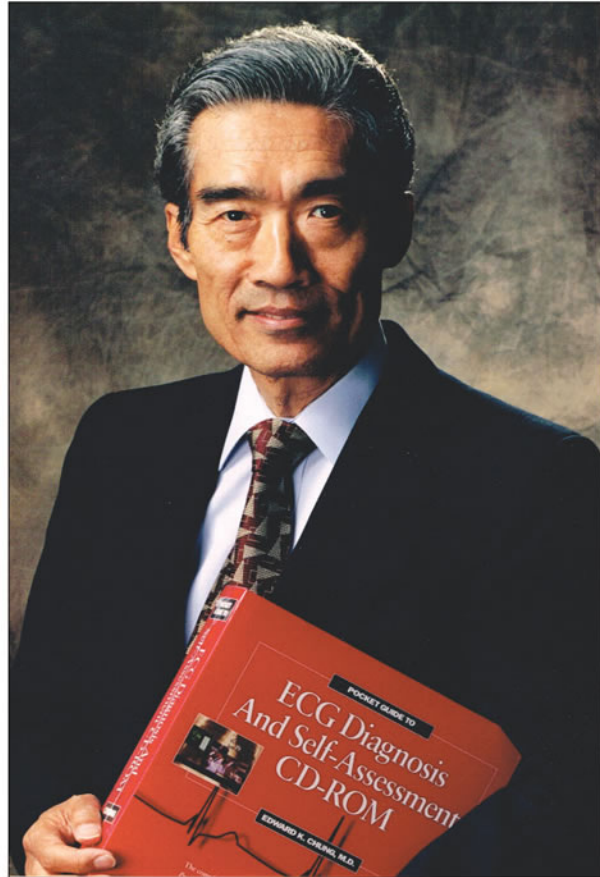
“교수 제직중 매년 6만여 건

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진단해 컴퓨터 심장 진단법을 연구개발해서 환자에게 적용시켰지요.”

“재직하는 동안 한국의 각 대학 심장내과 전문의를 32명 정도 초청해서 수련시키고 같이 연구했어요. 이들이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정 박사는 이외에도 5회에 걸쳐 한국에 나가 심전도 세미나를 가져 심장내과학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 광복절을 수여했으며 1997년 서울의대 모교는 ‘자랑스런 서울대의대 동문’에 선정했다. 이듬해 1998년에는 KBS가 ‘제6회 해외동포 특별상’을 수여했다.)

잘 알려진 성공한 의학자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요.

“직접 집필한 서적 한 권 한 권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필자만이 알지요. 게다가 미국내나 유럽 동지의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의학자들이 내



원쪽 사진은 지난 1997년 정구영 박사의 Jefferson대 의대 초상화 헌정식에 앞서 가족과 함께 찍은 것이다. 왼쪽부터 머느리 곽수혜 여사, 장남 크리스티퍼 정, 정구영 박사 부부, 손녀 니콜라스(현재 Yale대 재학중), 손녀 재클린, 장녀 린다 정, 사위 제임스. 첫 사진은 지난 1997년 출판된 서적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

책을 참고서로 펼쳐보며 질문하곤 했어요. 학회 때마다 출판사들이 책을 진열해놓는데 수요자들이 저자의 사인이 돼 있는 책을 요구해 그럴 때마다 사인에 초빙되곤 했지요. 그러

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이었지요. 간염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아 간경화가 됐다가 간암으로 발전 하지만 간경화에서 저절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있게 간암으로 발전한 케이스지요.”

“첫번째 간 이식수술은 어떻게 받았는지요.

“내가 재직한 Thomas Jefferson대 병원에 동문으로 유명한 간 전문의 한혜원(의대 55인학)박사가 있어요. 한 박사가 즉시 간 이식수술에 필요한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2002년 12월 Mayo Clinic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았지요.”

“세계 Top Class인 Mayo Clinic에서 수술에 관계한 12명의 Staff이 모두 정 박사님 제자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내가 간 이식수술을 받는다는 소문에 그 병원에서 일하던 제자 12명이 자원해서 수술실에 모여 들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성심 성의를 보여주던지 한 평생 정말 최고의 보람을 느낀 때였지요.”

“두번째 간 이식수술은 왜 받으셨나요.

“첫 수술 불과 6주 후 거부반응이 왔어요. 원인은 자세히 모르고 ‘Auto immune Problem’으로만 기록됐어요. 부랴 부랴 Mayo Clinic에서 다시 이식 수술을 받았죠. 이번에도 역시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수술에 참여해주었어요. 아마 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을지 모르죠.”



←지난 2002년 정구영 박사 부부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의대 동창회에서 마련한 여행 중 함께 한 장면이다.

내에서 내 소문이 자자해져 유명한 학자들도 가까이 해주고 모든 부서 직원들이 특별대우를 해주는 바람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 박사는 “이 일이 커다란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이에 따른 자신감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학업에서도 어떤 역경의 연구과정도 쉽게 이뤄지더라는 것이다.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한 가지에 자신감이 들면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붙어 농활이 배가되곤 해요. 평소 출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자신감이 없어 가진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를 거듭하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동문이나 후진들에게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려나요.”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 자신이 언제나 진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그 인과관계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지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지금까지도 내 후진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도에서 은퇴생활을 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은퇴생활에는 특히 지역적 환경과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치가 좋은 곳은 전혀 별문제입니다. 너무 출거나 더워도 좋지 않고 특히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가장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 Heart Attack은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발병해 불과 5-10분 사이에 귀중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가까이에 전문의 사나 병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곳 올란도가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지요.”

정구영 박사는 모교 의대 졸업 후 1958년부터 1962년까지 Washington University의 Barnes Hospital에서 Internship과 Medical Residency수련을 마치고 1962년부터 1964년 Cardiology Fellowship수련을 쌓았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는 West Virgini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심장내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 뒤 필라델피아의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로 옮겨 심장내과 주임교수와 Heart Station과장을 역임한 뒤 1998년 은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편집주>

일반 환자라면 장기 이식은 한번도 받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 박사는 두 차례, 그것도 거부반응 후 6주만에 재차 이식수술을 받은 것은, (여기서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적에 가깝다. 그만큼 미 사회에서의 정 박사의 위상을 대변해주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요즘을 굉장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소문인데요.”

“중증 동창회 관련 모임에 가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 후배들이 ‘요즘 최춘하시는 것 같네요’라며 농담을 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새파란 Teen-ager의 간을 이식 받았는데 젊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야?’ 하고 대답해주곤 하지요. ㅎㅎㅎ.”

정 박사는 의대생 시절에도 ‘사교계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스스로는 “사교계의 왕자”였다”고 했다. 당시 원출한 의모에 주변에서는 그 레고리 베풀 많이 받았다는 평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술도 아주 즐긴 데다가 노래와 피아노를 비롯해 가무(歌舞)에 능했는데 특히 기가 막힌 춤 솜씨는 장안에서도 유명했던 것으로 평평이 있다.

정 박사는 또한 자신을 ‘기분파’라고 했다. “학창시절 책상에 얹드려 하루 종일 공부에만 파고들면 ‘똥생원’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사내라면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하고 세상 물정에도 좀 눈이 띄어야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교 의대 학 시절 자원해서 입대했던 것도 정 박사의 이런 성격을 잘 대변해주는 일화 중 하나다.

“남들은 돈과 뽕으로 너도 나도 군에서 빠지던 시절이었었는데 자원입대는 의의인데요.”

“의대 입학하자 6.25가 터졌어요. 친했던 친구들과 모여 ‘우리가 이럴 때 가만있을 수 있느냐. 입대해서 봉사해야지 않겠느냐’ 하고 그 날로 군에 들어갔어요.”

“군의관으로 가셨겠네요.”

“의대 졸업생은 군의관 중위에 임관되나 재학중 입대해 의정장교(소위)로 동두천의 야전병원에 배치돼 복무했어요. 그 후 마산의 육군병원으로 전속됐지요. 그런데 그곳 마산이 평생에 있어 기막힌 곳으로 작용할 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마산에 ‘월궁(Moon Palace)’이라는 댄스 홀이 최고로 유명했어요. 이곳에서는 일본에서 유행한 최신 댄스들이 도입돼 있어 퇴근하기 무섭게 댄스홀을 붐고 가서 춤을 즐겼지요. 원래 이 방면에 취향이 컸던 터라 아무리 새로운

후배였던 이길녀(가천의대 설립자로 현 경원대 총장) 동문과 동기가 됐다. 그런데 이길녀 동문은 최인자 동문(작고)과 함께 평생의 동반자인 부인 이상인 여사와 다리를 놓아준 장본인이다.

이상인 여사는 이화여대 의대 May Queen 출신에 졸업시 A11-A의 특대생으로 총장상을 받은 재원(才媛)이다. 게다가 ‘현모(賢母)에 양처(良妻)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소문나 있다.

정 박사와는 지난 1958년 결혼했는데 결혼에 이르기까지 정 박사는 수도 없이 이상인 여사와 신정을 거스른 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의 일화들이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에 최신 양복을 중절모까지 멋을 부리고 나와서는 맞대놓고 대뜸 반말로 “내가 서울의대보다 못한 줄

조강지처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었으니까요.”

이상인 여사는 정 박사보다 1년 뒤 도미해서 Saint Louis대의대에서 Medical 트레이닝을 마쳤다. 그 후 필라델피아 Local Public Health에서 내과 의사로 재직하다가 정 박사가 은퇴한 지 1년이 지난 1999년 9월 은퇴했다.

“도미하시게 된 동기는요.”

“당시 미국 유학은 모든 학자들의 꿈이었어요. 나도 마시고 출주는 신념을 품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부친 제자 학자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1958년 8월 워싱턴대의대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나 당시 워싱턴대에서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나를 눈여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 정말 서운했지요.”

한국에서는 학교 성적은 물론 이름 석자만으로도 널리 알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보다 얼마나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은퇴생활은 기후변화가 적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장르라도 금방 익혀 마산에서도 춤꾼으로 금방 소문났어요. 마산은 내 사교춤의 원향(原鄉)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 꿈같은(?) 마산 생활도 1년 반 후 전역과 함께 모교로 복학해 돌아온다. 하지만 그의 춤바람끼(?)는 장안의 카바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사교춤이 ‘퇴폐문화’로 취급되던 시절인데 어땠나요.”

“나도 경찰에 몇 번 잡혀갔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당시 뽕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술책 술책 그냥 풀려나곤 했어요. 나도 부친 덕 많이 봤어요.”

군 제대 후 복학하는 바람에

신을 만나 얻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해 이상인 여사가 일어서 나가자 뒤따라 가서는

“하지만 전화번호와 주소는 적어놓고 가라.” 이상인 여사가 졸업식에 참석해주어 저녁식사에 초대하자 “나는 아무 초대나 도매금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 가”라고 거절해버린 일, 결혼 2주 전 약속 시간에 30분 늦은 이상인 여사에게

“파혼하자!”고 나섰던 것. 이 최대의 위기(?)에서 정 박사가 결국 사파함으로서 무사히 넘겼다고 했다. 이상인 여사가 슬기롭게 대처한 한편 이길녀·최인자 동문의 조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님이 못마땅하셨나요?”

“친한데요. 총명한 데다 마음씨가 그렇게 고울 수 없었어요. 부친께서는 이때 의대 학장까지 만나 확실하게 뒷조사(?)도 마쳤어요. 게다가 내가 그런 중병에 걸린 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지요. 의사로서 건강 체크와 응급처치는 물론

진 인사(?)였는데 미국 오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등 영체면이 팔이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정 박사는 “당시 한국의 의학수준이 미국에 비하면 극히 보잘 것 없었던 데다 6.25 전쟁 중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저 그런 학생 취급을 받았단”고 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보게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해 ‘크리스마스 파티였다’고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절호의 기회였겠네요.”

“의대 병원 Staff을 비롯한 간호사 등 전 직원들이 함께 하는 파티였어요. 한참 무도회가 벌어져도 몇 명 안된 동양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보다 못한 여직원 하나가 ‘같이 춤출 수 있는냐’고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갔지요. 나가자마자 음악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지루박·탱고·차차차·블루스를 비롯해 못하는 춤이 없이 스텝을 보여주었어요. 깜짝 놀란 관계자들이 잠시 무도회를 중단시키더니 나를 정식으로 소개까지 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어진 무대를 완전 장악해버렸죠. 그 이후는 병원

←지난 1998년 KBS의 ‘제6회 해외 동포 특별상’ 시상식에서 이길녀(왼쪽에서 세번째) 총장이 참석해 정구영 박사 부부를 더욱 반갑게 했다.





남가주 동창회

제7회 정기 음악회 커뮤니티 자원 준비

“음악으로 이루는 커뮤니티의 화합에 모두 함께 합시다” 동문 음악회에서 커뮤니티 화을 전치로 확대 계획. 7월 디즈니홀 정기음악회, 합창단원 외 부에 개방, 동참 환영.

매년 세계 최고의 공연장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여름 밤의 음악향연을 펼쳐왔던 남가주 총동창회 합창단(SNUAA Chorale 단장 홍광식)이 올해는 ‘모두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

는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9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7회 정기 음악회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합창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 합창단 모두가 함께 하는 무대다.

홍광식 단장은 “지난 해 말부터 한인 합창단들과 상의를 거

쳐 제7회 정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남가주 동창회 합창단 임원진들. 왼쪽부터 이세희 합창단 총무,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 김경옥 합창단 부단장, 홍광식 단장.

쳐 올 정기음악회는 서울대 합창단만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행사로 준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 합창단은 지난 2006년 음악 전공자가 아니라도 음악을 좋아하고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처럼 즐겁게 화합하며 살고 싶어 하는 동문들이 모여 새롭게 창단됐다.

제1회 정기 음악회가 같은 해 디즈니 홀에서 성황리에 끝난 후 해를 거듭하며 남가주 뿐만 아니라 미주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 단장은 “6년 동안 공연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노래만의 하모니가 아니라 노래를 통한 가정의 하모니, 나아가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에 동참을 원하는 이들은 게스트 특별출연도 좋고 찬조출연도 좋다. 출연진 모두가 한 무대에 올라 피날레인 ‘코리아 팬타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대합창을 통해 청중도 함께 노래하는 감동이 흥행 빠지게 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단 첫 시도이니만큼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라는 무대 제한에 대해 출연진들의 양해를 구할 뿐이다.

서치원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올해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국가·사회에 보다 가치 있는 기여를 이룩할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서치원 회장은 이어 “미주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도 서울대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문화행사이기에 이번 공연이 음악으로 화합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초석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동창회

시모어 마운틴 눈덮인 산행

밴쿠버 동창회가 봄냄새가 살랑대는 지난 2월 25일 일요일 시모어 마운틴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다음은 두 동문의 산행기다. 바람부는 토요일에 산에는 바람대신 눈이 펄펄처럼 날 날렸습니

다. 폭-푸-옥 빠지는 눈길을 따라 선후배와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산행을 마쳤는데, 비닐 반바지를 덧입고 신나게 썰매타고 눈길을 내려가시는 이광호 선배님을 보면서 지존이신 유동성 선배님의 감기가 얼른 나으시길 빌었고, 박하일 선배님, 장비 선배님, 샌프란시스코에서 방문 중인 박토벤 원철 선배님, BC 산악반장으로 바쁘신 김대현 선배님, 조현극 후배님, 동풍이 나아가는 진성훈 후배님, 다음 산행에 뭉치를 바랍니다.

홍국남 선배님이 그러는데 시카고에서는 저녁 헤어질 때 ‘Have a good night 대신 Drive Safely’ 한대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신다고!

문창영 회장님이 담으신 막걸리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

아 맛있는 킹크랩을 뜯는 오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두들 훈훈한 시간을 보내며 다음 산행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손주희> 많은 눈이 내린 시모어 마운틴은 별천지였습니다.

하얀 눈 속을 무심히 걷다보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조영제 동문이 예쁜 딸과 함께 산행에 참가해서 분위기도 좋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지각해서 험레벌떡 오르다가 탈진한 남궁영 동문을 보면서 매사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창영 회장님께서 뭉치로 한턱 내셔서 오후시간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산행에 참가하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철 전 회장님 부부, 이광호 동문회장님, 홍국남 선배님 부부, 문창영 산악회장님 부부, 최승선 산악회 부회장님, 조재용 선배님, 남궁영 선배님, 손주희, 그리고 조영제 후배님 가족 이렇게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최승선>



필라델피아 동창회

손재옥 전 회장 부군 수상 축하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2월 박인수 모교 음대 전 교수 초청 음악회를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에서 가졌다.

또한 문대옥(의대 67) 동문의 의대 미주 동창회장 취임과 장(박)혜란(음대 84) 동문의 ‘필라델피아 음악인 협회 회장’ 재선을 축하했다.

한편 손재옥(생활과대 77) 전 동창회장의 부군(하형록 미국명 Tim Haahs)께서 지난 2월 ‘2012 Delaware Valley Engineer of the Year’로 선정돼 축하 행사를 가졌다.

다음은 손 전회장 부군의 수상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Timothy Haahs named 2012 Delaware Valley Engineer of the Year.

On February 17, 2012, Timothy Haahs, PE, AIA accepted the 2012 Delaware Valley Engineer of the Year Award from the Engineers' Club of Philadelphia.

This honor was awarded on behalf of the engineering and technical societies of

the Delaware Valley, representing the geographic region ranging including Southern New Jersey, Philadelphia and the surrounding suburbs, and Delaware.

Individuals are nominated by one of the societies, and selected by delegates from the tri-state region. As the named Engineer of the Year, Tim actively participated in Engineers' Week activities and will continue to represent the engineering profession in the Delaware Valley throughout 2012.

Tim received the award as part of the 2012 Delaware Valley Engineers Week. National Engineers Week was established in 1951 to help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 In the Delaware Valley, Engineers Week program have been held since 1953.

↑손재옥 전 회장의 부군(Tim Haahs: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12 Delaware Valley Engineer of the Year’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The programs are sponsored by a coalition of engineering societies,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major corporations representing thousands of engineers. Engineers Week is a strong venue to inform our citizens of the value of engineers, celebrate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cultivate interest in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among the nation's youth - tomorrow's work force.

Thank you for including Tim's story as SNUAA Spring publication. Be blessed in this week with Lord's Spirit!

Janice Haahs / CFO, Vice President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T 484 342 0200 Ext 103 C 267 736 2992
www.timhaahs.com



관악새대/Acro광장(인류학 칼럼)<인류의 거짓말 시연>

사례들린 사람은 거짓말장이?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사례, 짐, 그리고 거짓말 = 얼마 전 저녁 모임에서의 일이다. 워낙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오' 선생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편을 토하다가 갑자기 기침을 한다. 그리고 두번 세번 계속 기침을 한다. 사례에 들려서 뭔가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이 모두의 귀에 들린다. 레퍼 거리는 기침이 계속 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 시작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하임리히 요법'을 마음속으로 복습한다(윗 그림 참조). 사례에 들려 고생하는 경우 등 뒤에서 한 주먹을 명치 아래 두고 다른 한 손은 명치 아래에 둔 주먹을 간짜 상방으로 쳐 올리듯이 4-5차례 밀어올리는 것이 성인에게 시행하는 하임리히 요법이다). 다행히도 목에 걸렸던 이물질은 마지막 기침과 함께 나오고, 선생은 계면적은 헛기침 몇 번으로 상황을 마무리 한다. 말 수가 적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네안데르탈인이 장사지내는 모습을 추정한 그림



사례에 자칫 잘못 들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사례는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 잘못해 후두로 빠져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일어난다.

주로 뭔가 황급히 먹다가 사례에 들리면 제재기와 기침을 해서 이물질들을 내보낸다. 그러나 간혹 제재기와 기침으로도 이물질이 튀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물질이 계속 기도를 막고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기까지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기도가 완전 폐쇄되면 5분 후에 뇌가 손상받기 시작해 10분 정도 지나면 뇌사가 된다.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숨쉬고 말하고 먹고 마시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은 왜 이리 부실하게 지어졌을까?

▶인간의 인두와 후두 = 그런데 대개의 동물들은 사례에 들리지 않는다. 후두의 위치 때문이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음식물은 목구멍을 통해 허파로 가는 위치로 가는데, 후두는 음식물이 기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중요한 교통정리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별 탈 없이 잘 되는 이유는 후두가 뒷쪽에 붙어서 미리미리 음식물은 식도쪽으로 공기는 기도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인간의 후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목구멍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그만큼 공기와 음식물이 쉽게 섞이고 후두가 제 구실을 못하기 쉽다.

인간 역시 태어날 때에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새 기획<한시(漢詩)감상>

이백의 독좌경정산(獨坐敬亭山)



김동근(공대 60)

이태백의 '성원한 벗'은 바로 이땅

이 달에는 이태백의 '獨坐敬亭山(독좌경정산)'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李白(이백)은 머리를 한 번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靜夜思(정야사)'를 지었고, 또 한 번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시(詩) 한 수(首)를 읊습니다.

衆鳥高飛盡(중조고비진)
孤雲獨去閑(고운독거한)
相看兩不厭(상간양불염)
只有敬亭山(지유경정산)

원문(原文)으로 외워봅시다.
'새 떼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 외로운 구름 한 조각 홀로가는 한가함 / 서로 보아 둘 다 싫지 않은 / 오직 경정산만 있구나'

2행의 '獨去'가 '去獨'으로 되어 있는 문헌도 있으나 뜻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衆(衆, 衆): 떼, 무리, 鳥(鳥): 새, 飛(飛): 날다, 盡(盡): 다하다, 雲(雲): 구름, 獨(獨): 혼자, 去(去): 가다, 閑(閑, 閑): 한가함, 相(相): 서로, 看(看): 보다, 兩(兩): 둘, 厭(厭): 싫다, 지루하다, 只(只): 다만, 오직, 敬(敬): 공경하다, 亭(亭): 집, 정자

盡(盡)자는 한시(漢詩)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다.

白日依山盡(백일의산진): 해는 산을 비껴 떨어지고(王之煥)

白雲無盡時(백운무진시): 흰 구름 끝없이 떠 갈 때(王維) 每事盡善(매사진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四字成語).

李白은 벼슬은 얼마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다닙니다.

753년 경정산(지금의 安徽宣城市 北)을 다가 가던 잠간 숨을 돌리는 사이, 새 떼가 인기척에 놀라 높이 날아나고, 새들이 날아간 쪽을 바라보니, 흰 구름 한 조각이 외로워 자기를 받기는 것도 잠깐 뿐인 것 같습니다.

구름이 사라진 곳에는 경정산 정상(頂上)이 또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습니다.

李白의 영원한 벗은 살아 움직이는 것들도 아니요, 구천(九天)의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서 있는 땅, 경정산이 아닌가 필자(筆者)는 상상해 봅니다.

물론, 다른 해석(解釋)도 있습니다. 각자가 한 번 해석해 보십시오.***

다하는 믿음직한 후두를 가지고 있다. 그 덕분에 젖먹이 아기들은 하루종일 숨을 쉬면서 젖을 먹어도 사례에 들리지 않는다. 갓난아이들은 후두가 위에 붙어 있어서 젖이 기도으로 들어오지 않게 잘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기들이 사례에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공교롭게도 웅얼이가 활발해지고 말을 시작하고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는 때와 엇비슷하다.

인간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 진화적 배경은 다른 언어의 발달이다. 후두가 내려갔기 때문에 얻어진 것은 큰 목소리통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목소리통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언어를 만들게 되었다.

언어는 인간에게 독특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인간은 사례를 대가로 목소리통을 얻은 셈이다.

▶의사소통은 다른 동물도 = 물론 인간만이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은 아니다. 모든 동물들은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들은 춤을 통해서 꽃이 어디 있는지 알린다. 영장류쯤 되면 꽤 복잡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보초를 서는 당번은 주위를 살피면서 천적이 나타나면 제빨리 집단 전체에 알린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그리고 이 곳에서 눈에 보이는 일에 관해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지금'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것을 주로 이야기한다.

우리의 이야기 소재는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의 가정 속의 일이다. 또한 바로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일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뒷담화다. 바로 추상적 사고의 바탕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 문명은 언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발달은 과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중요했다.

언어가 인류 진화 역사 속에서 언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형화된 석기를 만

들려면 제작 공정을 머리속에 그리고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돌을 한번 잘못 치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 언어의 기원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언어의 또다른 문제 = 혹은 인간 언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뇌의 발달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에 맞먹는 두뇌용량을 가지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인간 언어가 시작됐다.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기도 했던 네안데르탈인이라면 언어가 요구하는 추상적 사고 역시 가능했을 것이다.

기원이 언제였는지 불구하고, 언어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짓말을 가능하게 했다.

나 혼자만 거짓말을 한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단,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 외에는 모두 정직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인류 사회는 거짓말을 알아내고 제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거짓말을 예방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했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했지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서 결국 늑대에게 잡아 먹혔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유대-기독교에서 이웃에게 거짓말로 해를 끼치는 일은 죽음으로 할할 수 있을 만큼 중죄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세계의 주인이 됐지만 거짓말이라는 끝짓없어리도 떠안게 됐다. 세상에겐 공짜가 없다.***

↓아슬레암 돌도끼. 사진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30만년 전의 유물이지만 아슬레암 전통의 돌도끼는 15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





이영복 동문의 독일 여행기<2>

라이프지히와 뤼켄

이영복(공대 59)
미주 동창회 전회장·작가

▶라이프지히에서= 버스가 베를린을 떠나서 작센 주의 주도이자 한 때 한자동맹의 중심 도시로 유명했던 라이프지히로 들어가고 있다. 베를린은 어떤 의미에서 구 동독 지역이 아니었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구 동독의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문득 몇 해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 만났던 체코계의 미국인으로 조지아에서 온 젊은 친구와의 대화가 생각났다. 체코와 이웃 각 민족들의 민족 춤 축제 때였다. 집시들이 춤추는데 속된 말로 영 메가리(氣)가 없었다.

내가 "이탈리아·스페인 같은 나라 집시들은 날뛰고 소매치기나 하는 등 영 골치아픈 족속인데 이곳 집시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공산주의 하에서는 소매치기 같은 것은 꿈도 못꾸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 했기에 몇 천년 내려왔던 그들의 생활을 못해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동독인들은 독일 나치에서, 또는 공산 치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갑자기 찾아온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것이 그들 생활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궁금했다.

들자니 동독의 한 젊은 친구가 서독에 와서 약값이 일해서 돈을 벌며 고향인 동독으로 돌아가려 하니 영 눈길도 굽지 않아 다시 돌아 갔다고 한다. 동독인들 눈에는 그가 억척스럽고 욕심쟁이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라고

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마침내 시내에 들어 왔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현실이 아니었다. 길가 여기 저기 오픈 카페에 앉아 맥주·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들은 아주 평화스럽고, 여유있어 보였고, 어쩌면 품위까지 지니고 있는 듯했다. 또한 특이한 것이라면 거리 악사들이 기타가 아니고 여러 명이 금관 악기로 클래식 음악 연주를 열심히 연주하는 정도라구나 할까?

이곳에서 보았던 것 중 3 곳이 기억에 남는다. 먼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성가대 지휘자로 평생을 보냈고,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는 성 토마스 교회였다. 1409년 라이프지히 대학을 세워 준 600 년이나 된다는 교회였다. 다음이 매들러 파사주(아케이트 상가라는 뜻)에 있는 아우어바흐 켈러(지하 저장실이란 뜻)라는 500년 이상이 된 지하 식당에서 먹은 점심식사였다. 이 식당이 파테의 소설(파우스트)의 배경이었다고 해서 온통 파테 그리고 파우스트 소설의 등장 인물 조각이 즐비했다.

그러나 내 방문의 하일라이트는 성 니콜라이 교회였다. 1165년 한자동맹의 통상 교차점에서 상인들의 수호신인 니콜라이에 의해 봉헌됐다고 하며 그후 가톨릭 성당에서 루터 종교개혁의 중심에 선 이 성당이 교회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종교 개혁의 주체인 이 교회가 1980년부터 서독의 군비 축소 운동의 호응으로 교회 내에서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시작된 모임이 동독 경찰의 감시와 출입 통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비밀정찰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점점 참가자가 늘어 나고 또 시청 광장까지 촛불 시위로 번져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리는 시발점이자 독일 통일의 성지가 된 곳이다.

파테·니체·바그너·슈만을 배출한 라이프지히 대학이 이 지역에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했다.

◀민주화 햇볕로 베를린 장벽을 허문 시발점이 된 성 니콜라이 교회.

▶뤼켄에서= 뤼켄으로 가고 있다. 사실 그곳 방문은 오로지 철학자 니체의 무덤이 있는 그의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버스 안에서 작가 C씨가 러시아 귀족의 딸 루 살로메와 니체, 그리고 그의 친구인 철학 교수 퍼틀레, 이 세 사람이 육체 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이상한 동거 생활, 그 후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는 섹스 관계가 없었고 오로지 애인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등 어찌 보면 황진이처럼 남자들을 제미로 농락했던 것인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여권 신장을 향한 것인지, 이상한 행동의 살로메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나는 독일 문단에서도 잘 알려진 그녀의 소설이 아니라 그의 회고록이라도 언젠가 읽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찌 되었던 지 사실 나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니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제 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독일어 선생님들은 독일어 전공이 아니라 일제 시대 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분들이었다. 나는 그 당시 노총각 C라는 선생님이 생각났다. 시험 때 그 분이 감독관으로 들어 오면 개구장자들은 환성을 질렀다. 아주 마음 놓고 커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C 선생은 우리가 생쥐같이 눈을 번뜩이며 남의 답안지를 훑쳐보는 것을 탄핵 보면서 도끼질하며 자신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떨

베를레의 마들렌느 대성당<1>



이연행(문리대 68)

요즘 여름이 되어 유럽에 여행가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에게 좋은 문화재를 구경하시라고 소개해 본다. 내가 그곳에 살 때 가장 좋아한 곳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에 내가 유럽을 여행하며 특히 애정을 가지고 관찰했던 건축물은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들이었다. 고딕 양식처럼 천장의 아치가 십자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둥근 것이 특징이며, 조각들이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순수하고 소박하면서, 벽화와 기둥들에 칠해진 색깔이 아직도 선명히 보이는 성당들도 있다.

이런 문화재들은 전쟁의 피해를 적게 입은 시골에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내가 살던 파리에서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부르고뉴 지방이나 프랑스 중부의 산간 지방, 또는 대서양 쪽의 생동주 지방에서 좋은 성당들을 많

동문 시 감상

꿈속을 헤매듯
정희자(미대 50)
화가·문인

밤과 낮은 어둠이 오고 가는데
그의 시작과 끝은 누구라서
질 수 있겠노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에 의
해 날자를 세며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어
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대
무엇하러 왔다 가는가
짧은 순간 외롭고 고단한

치며 웃고만 있었다.

6.25 전후라 만연했던 허무주의 속에서,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친 니체,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삶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실존주의의 시작인 니체, 그런가 하면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제창, 히틀러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던 니체, 독일 철학을 공부한 그분으로서의 꽤나 머리 정리가 안되었던가 싶다.

그러한 니체가 묻혀 있는 교회에 들어 왔다. 가족의 묘, 그리고 니체의 묘, 그 가운데 그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묘가 있다. 일설에는 죽은 니체의 글을 엘리자베스가 히틀러 입맛에 맞게 왜곡했고 그래서 히틀러의 신임이 대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교회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었다. 그의 생의 말기에 그는 정신병으로 그의

한 밤에 꿈 속을 헤맸는가
또다시 우리에게 사후세상을
말하여 희망을 주나
그 누가 보고 듣고 온 자를
보았는가

끝없는 하늘과 해와 달 먼지
같은 우리가 무엇을 알리
또다른 세상 천국 있다 하니
그라도 믿지 않고 어찌 살리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살았다. 하지만 자기 동생을 죽은 아버지가 데려가는 환영을 본 후 실제로 동생이 죽은 사건이 오라가락하는 그에게 꽤나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꿈에서 보았다는 자기 모습, 멀거졌고 모자로 아래를 가린 동상도 보인다.

1800년에 그는 죽었다. 가장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방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실존철학이라는 지평을 연 철학자 니체일 것이다. 나는 속소로 떠나는 버스에서 대학 시절 니체의 철학 책을 샀었고, 그리고 하도 어려워져 몇 페이지 읽다가 그만 둔 것이 생각 났다.

"글쎄 이제 다시 읽는다면 몇 페이지나 더 읽을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며 읊조려한 미소가 지어졌다.***<계속>

등머리에 조각된 성경 속의 인물들은 큰 얼굴에 작은 키로 물결처럼 주름진 옷을 입고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시선으로 말할 수 없이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표현을 전달한다.

9세기 베네딕토 수도원 주위에 생긴 이 마을은 오랫동안 명승지가 되었다. 중세 때부터 유럽의 가톨릭 순례자들이 반드시 이 수도원 성당에 들러 묵고, 포르투갈의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의 제일 중요한 성당이었다. 1146년 부활절에 성 베르나르도에게 설교를 했다. 그후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프랑스의 루이 9 세 등 수많은 프랑스 왕들이 이곳을 순례했다.

11세기 말부터 이 성당의 새 중심부와 새 측방이 건축되었다. 1125년부터 수도원의 수사들이 입구 문들의 윗쪽의 삼각형 벽면에 조각을 하려고 '오명의 질트베르투스' 등의 수많은 거장 조각가들을 영입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입구의 문들로 들어가 내부의 회랑 밖에 있는 성당의 중간 입구다. 이곳도 1145년부터 1150년 동안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중앙 문과 그 윗쪽의 벽면 조각은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조각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영광의 예수>를 중심으로, 열두 제자의 한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모습이다.<계속>

고국 동문동정

수상

▲池憲澤(치의학43 - 47 前대한배구협회 부회장·대한 치과의사협회 고문)=최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특별공로상 수상.

▲辛東熙(임학53 - 57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지난 2월 24일 국내외 포장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포장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卞柱仙(영어교육60 - 64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사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오는 3월 29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유관순장위령회로부터 제11회 유관순상 수상.

▲崔鴻圭(교대원65 - 67 중앙대 명예교수·시인)=지난 1월 27일 한국농민문학회가 수여하는 제19회 한국농민문학상 수상.

▲崔鍾庫(법학66 - 70 모교 법학부 교수·시인)=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3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趙錫俊(기상73 - 77 기상청장)=지난 2월 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44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인 공로로 '칸타나상' 수상.

▲陸榮浚(법학74 - 78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월 10일 사단법인 법조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柳振寧(화학공학75 - 79 LG화학 부사장)=지난 2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경영인상(최고기술경영자 부문) 수상.

▲尹保鉉(의학75 - 79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법석 의학상 수상.

▲朴英姬(물리79 - 83 국회의원)=지난 2월 15일 한국과학기술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로부터 제1회 의학교육대 의실현상 수상.

▲黃炳俊(전기공학87 - 91 사운드미러 코리아 대표)=지난 2월 12일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5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고기술상(클래식 부문) 수상.

▲尹義漢(AIP 23기 대창 기술연구소장)=지난 2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경영인상(연구소장 부문) 수상.

인사

▲洪承昊(불문57 - 62 前주자이트 대사·시인)=지난 1월 26일 도봉문인협회 회장 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장에 선임.

▲李綱均(정치59 - 64 인하대 객원교수·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3일 대한인론인회 편집고문에 선임.

▲元佑鉉(행정61 - 65 고려대 명예교수·미국 UCSD 초빙교수)=지난 2월 10일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초대 원장에 취임.

▲高興吉(정치62 - 66 前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국회의원)=지난 2월 24일 특임장관에 임명.

▲박용현(의학62 - 68 두산그룹 회장·의대 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2월 21일 한국메세나협회의 제8대 회장에 선출.

▲李泰植(외교64 - 70 前주미대사)=지난 2월 2일 연합뉴스 제3기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李佑喆(법학67 - 71 前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前생명보협회장)=지난 2월 24일 코람코자 산신탁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韓廣洙(경제67 - 71 前국무총리·前주미대사)=지난 2월 22일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임.

▲李明哲(의학67 - 73 모교 의학고실 교수)=지난 3월 5일 가천대 길병원장 겸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에 취임.

▲林瑒培(항공공학70 - 74 인하대 교수)=지난 2월 15일 임기 4년의 인하대 제13대 총장에 선임.

▲金錫滿(지리7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월 27일 임기 3년의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에 선임.

▲朴君哲(원자핵공학71 - 75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지난 2월 19일 한국전력 학교법인 한국제원자력대학원대 초대 총장에 선임.

▲鄭海文(무역72 - 76 前부산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前주태국대사)=지난 2월 9일 한·아세안센터 제2대 사무총장에 임명.

▲崔炳德(법학72 - 76 前울산지방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

▲郭守根(경영73 - 77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2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

▲李達坤(전자공학73 - 77 前행정안전부 장관·가천대 석좌교수)=지난 2월 15일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에 임명.

▲金鍾伯(법학73 - 77 前제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특허법원장에 임명.

▲金澤秀(법학73 - 77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장관급)에 임명.

▲李銘斗(철학74 - 78 前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지난 2월 17일 소상공인진흥원 제3대 원장에 선임.

▲金相燕(경제74 - 78 광운대 교수·국방부 자문위원)=지난 2월 14일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학회 회장에 취임.

▲金明俊(계산통계74 - 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연구본부 연구위원)=지난 3월 1일 한국정보과학회 제27대 회장에 취임.

▲李銀盛(법학74 - 78 前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

▲朴炳柱(의학74 - 80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오는 4월 개원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에 임명.

▲權英壽(경영75 - 79 LG화학 사장)=지난 2월 1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

▲禹基鍾(경영75 - 79 통계청장)=지난 2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선출.

▲陳泳坤(경영75 - 79 청와대 교육복지 전 수석 비서관)=지난 2월 13일 감사원의 감사위원(차관급)에 임명.

▲李晟補(법학75 - 79 前청주지방법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장)=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 또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31대 위원장에 취임.

▲姜大錫(경영76 - 80 前신성투자자문 대표)=지난 2월 10일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金二煥(기계공학76 - 80 前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지난 2월 15일 임기 3년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에 선임.

▲洪東昊(경제79 - 8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에 임명.

▲河智濤(농경제81 - 85 前조인스닷컴 대표)=지난 2월 15일 창간한 인터넷신문 퍼플뉴스 대표에 선임.

▲崔炯斗(사회81 - 88 前문화일보 AM7 편집장·논설위원)=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임명.

▲李昌炫(농생물82 - 86 국민대 교수)=지난 2월 17일 임기 3년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임명.

▲金海哲(해대원85 - 88 중소기업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청 차장에 임명.

▲朴在植(해대원85 - 88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徐萬哲(ACAD 63기 공주대 총장)=지난 2월 14일 임기 1년의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18대 회장에 선출.

▲李世漢(AIC 11기 GT&T 대표·AIC동창회장)=지난 2월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제2대 감사에 선임.

▲邊衡尹(경제45-51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2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李明博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俞東濤(잠사56 - 60 부윤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 동창회장)=지난 2월 24일 전국 대학(원)생 1백17명에게 장학금1억2천만원 수여.

▲金勳東(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지난 2월 6일 수원의 젊은 예술인 82명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수원 젊은 예술인 선집' 발간기념회 개최.

▲金春玉(회화64 - 68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인하대 겸임교수)=지난 3월 2~16일 대구 맥향화관에서 개인전

▲孫海鎰(잠사67 - 75 서초문인협회장)=최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문학서초' 제15호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서초문학상 수상식 개최.

▲郭贊浩(신대원69 - 71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6·25국가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정세전단' 특강.

▲朴明濤(보대원74 - 76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지난 2월 24일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鄭鍾美(회화76 - 80 고려대 교수)=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인에서 '여성성에 부치는 헌사 -보자기 부인'을 주제로 개인전.

▲韓玉美(작곡83 - 87 가톨릭대 교수)=지난 2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인생시계 5시6분'을 주제로 창작곡 발표회 개최.

▲이경미(성악03 - 07 소프라노)=오는 3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그랜드오페라 갈라콘서트에 출연.

▲李 沁(ACAD 32기 주택문화사 사장·대한노인회장)=지난 2월 1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노인회 정기총회 개최.***

▲金勳東(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지난 2월 6일 수원의 젊은 예술인 82명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수원 젊은 예술인 선집' 발간기념회 개최.

▲金春玉(회화64 - 68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인하대 겸임교수)=지난 3월 2~16일 대구 맥향화관에서 개인전

▲孫海鎰(잠사67 - 75 서초문인협회장)=최근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문학서초' 제15호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서초문학상 수상식 개최.

▲郭贊浩(신대원69 - 71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6·25국가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정세전단' 특강.

▲朴明濤(보대원74 - 76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지난 2월 24일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鄭鍾美(회화76 - 80 고려대 교수)=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인에서 '여성성에 부치는 헌사 -보자기 부인'을 주제로 개인전.

▲韓玉美(작곡83 - 87 가톨릭대 교수)=지난 2월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인생시계 5시6분'을 주제로 창작곡 발표회 개최.

▲이경미(성악03 - 07 소프라노)=오는 3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그랜드오페라 갈라콘서트에 출연.

▲李 沁(ACAD 32기 주택문화사 사장·대한노인회장)=지난 2월 1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노인회 정기총회 개최.***

▲趙永植(법학47-50 경희학원 설립자)=2월 18일(91세)

▲허경(법학52-56 남농미술문화재단이사장)=2월 21일(79세)

▲尹鎰重(정치53-57 한국언론인포럼 회장)=2월 28일(77세)

▲吳炳台(건축54-58 동남주택회장)=2월 6일(83세)

▲李頌柱(농생물54-58 前농약공업협회 상무)=2월15일(81세)

▲李大源(경제54-58 환면무역대표)=2월 6일(80세)

▲李善宇(화학공학55-59 前호남석유화학 전무)=2월20(77세)

▲韓榮國(사학55-59 前인하대교수)=2월 7일(75세)

▲金左洙(영문60졸 前주불가리아 대사)=2월 15일(78세)

▲金正國(행정61-65 前문화일보 사장)=2월 17일(73세)

▲崔漢培(경영71-75 대주전자재료 부회장)=2월 8일(61세)

▲李承基(외교79-83 한국녹색회 정책실장)=2월 11일(52세)

▲宋炳循(AMP 9기 前은행감독원장)=2월 15일(83세)

▲金 濤(ACAD 18기 前체육부장관)=2월 4일(86세) ***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4월 12일까지)

2011.7~2012.6월 동창회비

▶Alaska

윤제중(동대 55)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정문필(사대 59)
지영환(의대 59)
전병규(공대 70)
최종태(공대 69)

▶California

▶가정대

김해인(가정 69)
제영혜(가정 71)
▶간호대
강정자(간호 61)
김정혜(간호 69)
김현순(간호 69)
나정자(간호 70)
박순자(간호 60)
신정수(간호 54)
심진숙(간호 68)
오양숙(간호 60)
이명희(간호 67)
이영진(간호 77)
이종보(간호 69)
이호진(간호 74)
장인숙(간호 70)
정장동(간호 54)
최덕순(간호 59)
최영순(간호 69)
한혜순(간호 70)

▶공대

강종경(공대 48)
김기수(공대 74)
김란영(공대 53)
김상영(공대 57)
김원박(공대 66)
김진석(공대 78)
김희창(공대 57)
노명호(공대 61)
노상규(공대 60)
독교원(공대 65)
류대성(공대 54)
문덕수(공대 73)
박정화(공대 51)
박우선(공대 63)
박원준(공대 53)
박종근(공대 64)
성민정(공대 66)
손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신광재(공대 73)
양성문(공대 66)
양승문(공대 66)
윤용길(공대 55)
원광웅(공대 60)
이광재(공대 59)이근호(공대 46)
이문상(공대 62)
이범식(공대 61)
이정옥(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중희(공대 53)
이혜영(공대 56)
임창희(공대 73)
장기창(공대 56)
전철승(공대 51)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석(공대 57)
정두호(공대 64)
정진수(공대 56)
조정시(공대 60)
조종용(공대 45)
진성호(공대 65)
차기민(공대 85)
최용원(공대 57)
최왕국(공대 69)
하기환(공대 66)
한의일(공대 62)
한호준(공대 58)
홍용화(공대 73)
홍정일(공대 59)

▶사대

김제영(사대 62)
박인수(사대 64)
방석훈(사대 55)
엄동해(사대 74)
이방기(사대 59)
이상대(사대 80)
이영식(사대 60)
이정일(사대 57)
전범수(사대 71)
최정현(사대 65)
▶문리대
고석원(문리 50)
권영제(문리 57)
김기태(문리 55)
김순권(문리 61)
김용권(문리 47)
김현호(문리 59)
문병길(문리 61)
민병근(문리 58)
박정화(문리 46)
박문규(문리 68)
서영석(문리 61)
양광주(문리 58)
이연형(문리 68)
이원익(문리 73)
이정옥(문리 71)
임원민(문리 61)
장동석(문리 66)
조태준(문리 53)
최인용(문리 65)
최재윤(문리 54)
▶미대
강정호(미대 56)김경옥(미대 61)
김영배(미대 61)
김영옥(미대 61)
박은숙(미대 62)
신화정(미대 73)
원미량(미대 65)
신정연(미대 61)
이선화(미대 83)
임동규(미대 57)
▶법대
강동순(법대 59)
김재철(법대 54)
김석홍(법대 59)
김진기(법대 59)
김영환(법대 54)
김순길(법대 54)
김종표(법대 58)
김태운(법대 53)
문병하(법대 51)
이기문(법대 54)
이서희(법대 70)
이재권(법대 56)
조성운(법대 46)

▶수대

강신용(수대 73)
강신호(수대 49)
강진호(수대 58)
권오형(수대 61)
김수영(수대 57)
김영호(수대 55)
윤재자(수대 66)
남장우(수대 55)
박영옥(수대 55)
박자경(수대 60)
박현숙(수대 54)
서동영(수대 60)
윤성희(수대 58)
이기재(수대 52)
이익실(수대 58)
이정근(수대 60)
전낙관(수대 60)
전성욱(수대 52)
전성대(수대 60)
전태필(수대 61)
조재길(수대 61)
조태욱(수대 60)
차종환(수대 54)
최복영(수대 56)
홍순택(수대 59)

▶사회

박우성(사회 77)
최정희(사회 83)
▶상대
강호석(상대 81)
김낙구(상대 67)
김동인(상대 56)
김병호(상대 57)
김윤수(상대 50)
김영서(상대 54)
김일평(상대 62)
김정민(상대 58)김 훈(상대 74)
문병권(상대 47)
박의순(상대 53)
배석민(상대 71)
성주정(상대 68)
신대식(상대 80)
신영수(상대 70)
심상은(상대 54)
유진형(상대 47)
이정환(상대 50)
이명선(상대 58)
이승훈(상대 74)
이정광(상대 61)
임동원(상대 58)
정원훈(상대 38)
조만연(상대 58)
지성호(상대 73)
자인수(상대 59)
최승환(상대 53)

▶수대

박종수(수대 58)
변영근(수대 52)
신동국(수대 76)
한상봉(수대 60)
▶약대
김원경(약대 59)
김진희(약대 64)
문정현(약대 54)
박제인(약대 60)
박희서(약대 60)
배상규(약대 61)
신한경(약대 47)
유세미(약대 62)
윤재자(약대 66)
이길자(약대 63)
장진성(약대 66)
최무식(약대 66)

▶Chicago

강희영(문리 50)
김갑중(의대 57)
김계근(공대 60)
김명윤(문리 65)
김용범(의대 54)
김윤하(공대 66)
김일훈(의대 51)
김정주(문리 60)
고병철(법대 55)
구정희(의대 59)
권영재(의대 59)
노영일(의대 62)
문조준(약대 62)
민영기(공대 65)
박용순(의대 53)
배영철(의대 54)
서상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신부식(치대 59)
신석균(문리 54)
심상구(상대 63)
안신훈(동대 61)
양선희(의대 59)
오명자(간호 60)김홍서(의대 63)
나두수(의대 66)
박병원(의대 49)
이동준(의대 51)
이상문(의대 54)
이준식(의대 61)
이종표(의대 58)
이희영(의대)
임우오(의대 59)
이정일(의대 66)
이준일(의대 65)
이춘우(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현제(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Heartland

구병순(간호 66)
▶Indiana
임영신(의대 54)
하상태(의대 57)

▶Maryland

강창욱(의대 55)
권기현(사대 53)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옥련(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한수(상대 81)
석규범(문리 61)
소수영(간호 64)
오혜원(약대 55)
우계형(상대 54)
이우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이태영(법대 80)
임종식(의대 51)
임필순(의대 54)
장윤희(사대 54)
전정철(공대 55)
홍영석(공대 58)

▶Delaware

문대옥(의대 67)
배성준(의대 66)
안세현(의대 62)

▶Florida

박창익(동대 64)
신상재(수대 59)
안창현(의대 55)
이중우(의대 58)
전영자()
정진목(의대 50)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학상(의대 55)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윤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박천기(법대 55)
박한식(문리 59)
방창도(문리 49)
안송덕(상대 51)
양정자(간호 61)
이명재(상대 54)
이영진(공대 76)유태종(공대 60)
이덕수(문리 58)
이동균(공대 75)
이소희(의대 61)
이승자(사대 60)
이영철(공대 64)
이용택(공대 48)
이윤보(동대 57)
이정일(동대 57)
이중일(의대 65)
이춘우(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현제(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Heartland

구병순(간호 66)
▶Indiana
임영신(의대 54)
하상태(의대 57)

▶Maryland

강창욱(의대 55)
권기현(사대 53)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옥련(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한수(상대 81)
석규범(문리 61)
소수영(간호 64)
오혜원(약대 55)
우계형(상대 54)
이우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이태영(법대 80)
임종식(의대 51)
임필순(의대 54)
장윤희(사대 54)
전정철(공대 55)
홍영석(공대 58)

▶Delaware

문대옥(의대 67)
배성준(의대 66)
안세현(의대 62)

▶Florida

박창익(동대 64)
신상재(수대 59)
안창현(의대 55)
이중우(의대 58)
전영자()
정진목(의대 50)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학상(의대 55)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윤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박천기(법대 55)
박한식(문리 59)
방창도(문리 49)
안송덕(상대 51)
양정자(간호 61)
이명재(상대 54)
이영진(공대 76)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80)
장세문(상대 59)
정상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정일화(상대 55)
진창진(의대 55)
최우택(공대 76)
최종진(의대 63)

▶Hawaii

김창원(공대)
유재호(문리 57)
윤상철(약대 47)

▶Heartland

구병순(간호 66)
▶Indiana
임영신(의대 54)
하상태(의대 57)

▶Maryland

강창욱(의대 55)
권기현(사대 53)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옥련(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한수(상대 81)
석규범(문리 61)
소수영(간호 64)
오혜원(약대 55)
우계형(상대 54)
이우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이태영(법대 80)
임종식(의대 51)
임필순(의대 54)
장윤희(사대 54)
전정철(공대 55)
홍영석(공대 58)

▶Delaware

문대옥(의대 67)
배성준(의대 66)
안세현(의대 62)

▶Florida

박창익(동대 64)
신상재(수대 59)
안창현(의대 55)
이중우(의대 58)
전영자()
정진목(의대 50)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학상(의대 55)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윤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박천기(법대 55)
박한식(문리 59)
방창도(문리 49)
안송덕(상대 51)
양정자(간호 61)
이명재(상대 54)
이영진(공대 76)박인영(의대 69)
박정선(동대 60)
성옥진(치대 87)
이창재(문리 56)
왕규현(의대 56)
패트랑() 60

▶Michigan

권순관(공대 60)
남성희(의대 58)
오상현(의대 55)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6)
육순제(의대 59)
유효명(의대 60)
육태식(의대 61)
윤호운(의대 62)
정정순(의대 72)
정 태(의대 57)
조문희(공대 56)
차대양(공대 55)
하계현(공대 64)

▶Missouri

곽노균(상대 51)
김승희(법대 55)
▶Montana
곽노균(상대 51)
박용호(의대 59)

▶Nevada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판(공대 55)
최영수()
최영석(의대 59)
한민원(의대 62)

▶Nebraska

김명자(문리 62)
▶New Jersey
강석권(법대 61)
고순정(간호 69)
고애자(사대 58)
곽상준(약대 55)
곽선철(공대 61)
권오근(상대 58)
김규화(상대 63)
김세환(공대 65)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은철(의대 53)
김정혜(간호 64)
김현수(공대 82)
김현우(공대 56)
김호겸(법대 57)
김훈일(공대 60)
라준국(공대 47)
박성일(상대 58)

▶Minnesota

권하주(치대 59)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7)박성호(공대 57)
박승화(간호 69)
박진우(상대 77)
반영철(약대 54)
배명애(간호 49)
서정용(약대 69)
전우문(약대 63)
전우치민(약대 48)

▶Michigan

송기인(의대 60)
송용철(동대 63)
신두식(의대 58)
신정택(약대 61)
연봉원(문리 61)
육순제(의대 59)
유준식(법대 58)
이경림(상대 64)
이경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운순(의대 52)
이유환(의대 58)
이재원(법대 60)
이재원(법대 60)
이중환(법대 51)
이태형(문리 62)
이행순(미대 60)
정순기(문리 69)
조종원(수대 67)
최영태(문리 64)
최준희(의대 58)
최한선(공대 56)
한민우(의대 69)
한태진(의대 58)
허선행(의대 58)

▶Missouri

곽노균(상대 51)
김승희(법대 55)
▶Montana
곽노균(상대 51)
박용호(의대 59)

▶Nevada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판(공대 55)
최영수()
최영석(의대 59)
한민원(의대 62)

▶Nebraska

김명자(문리 62)
▶New Jersey
강석권(법대 61)
고순정(간호 69)
고애자(사대 58)
곽상준(약대 55)
곽선철(공대 61)
권오근(상대 58)
김규화(상대 63)
김세환(공대 65)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은철(의대 53)
김정혜(간호 64)
김현수(공대 82)
김현우(공대 56)
김호겸(법대 57)
김훈일(공대 60)
라준국(공대 47)
박성일(상대 58)

▶Minnesota

권하주(치대 59)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7)서영숙(간호)
선종철(의대 57)
성기호(약대 57)
손경택(동대 57)
신희정(의대 55)
안태홍(상대 65)
안종원(동대 61)
양기영(의대 49)
윤병하(동대 80)
윤봉균(사대 54)
윤영철(의대 57)
이국진(사대 51)
이대영(문리 64)
이병무(법대 57)
이성구(약대 56)
이승철(약대 66)
이영애(치대 52)
이진구(동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준형(공대 48)
이준준(공대 56)
이현호(공대 58)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임석태(보원 68)
임충섭(미대 60)
전병삼(약대 54)
조규웅(의대 59)
조남철(사대 59)
조대영(공대 61)
조숙자(간호 59)
조태환(상대 59)
진봉원(공대 50)
차국만(상대 56)
최석진(사대 54)
최영태(문리 67)
최현웅(동대 58)
한승원()
한영수(의대 61)
한영진(미대 56)
한인수(사대 73)
허병일(사대 42)
홍선정(의대 58)
홍승훈(공대 65)

▶Michigan

송기인(의대 60)
송용철(동대 63)
신두식(의대 58)
신정택(약대 61)
연봉원(문리 61)
육순제(의대 59)
유준식(법대 58)
이경림(상대 64)
이경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운순(의대 52)
이유환(의대 58)
이재원(법대 60)
이재원(법대 60)
이중환(법대 51)
이태형(문리 62)
이행순(미대 60)
정순기(문리 69)
조종원(수대 67)
최영태(문리 64)
최준희(의대 58)
최한선(공대 56)
한민우(의대 69)
한태진(의대 58)
허선행(의대 58)

▶Missouri

곽노균(상대 51)
김승희(법대 55)
▶Montana
곽노균(상대 51)
박용호(의대 59)

▶Nevada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판(공대 55)
최영수()
최영석(의대 59)
한민원(의대 62)

▶Nebraska

김명자(문리 62)
▶New Jersey
강석권(법대 61)
고순정(간호 69)
고애자(사대 58)
곽상준(약대 55)
곽선철(공대 61)
권오근(상대 58)
김규화(상대 63)
김세환(공대 65)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은철(의대 53)
김정혜(간호 64)
김현수(공대 82)
김현우(공대 56)
김호겸(법대 57)
김훈일(공대 60)
라준국(공대 47)
박성일(상대 58)

▶Minnesota

권하주(치대 59)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7)

*동문에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기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연\$200	☐	2011~2012년 \$75	☐
연\$500	☐	2011~2012년 \$120	☐
연\$1,000	☐	디자인 명함1/2 \$200	☐
기타\$	☐	디자인 명함크기\$500	☐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310-515-7888>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Cardholder's Name:		Expire Date:	
		Date:	

▶N. Carolina
마동일(의대 57)
이석형(사대 53)
조동원(의대 52)
한광수(의대 57)
홍 훈(자연대)

▶Ohio
김태웅(의대 61)
김한교(문리 47)
김현왕(공대 64)
박 철(사대 55)
손기용(의대 55)
송영덕(의대 57)
송용재(의대 63)
이진일(의대 64)
이영웅(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Oklahoma
이정숙(가정 70)
이상강(의대 70)
차봉희(의대 51)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성정모(사대 67)
이은철(문리 53)
전병택(상대 65)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Philadelphia
강준철()
김상철()
김영배(수의 55)
김영우(공대 58)
김은국(의대 58)
김은옥(간호 76)
김재술(약대 58)
김태양(사대 61)
남영선(공대 79)
서종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송영두(의대 55)
신선자(사대 60)
심완섭(의대 67)
양은택(의대 58)
오연자() 53)
오진석(치대 55)
윤경나(음대 57)

은재길(문리 59)
이규호(공대 55)
이기범(의대 55)
이만택(의대 52)
이병영(공대 48)
이지훈(미대 57)
정영자(치대 63)
정용남(문리 60)
정영수(의대 55)
주기목(수의 68)

▶Texas
강 Patricia
김영민(문리 58)
곽노환(문리 48)
김기준(공대 61)
김영옥(가정 74)
김영창(공대 64)
김희선(의대 60)
김정훈(공대 46)
김진만(공대 57)
김태호(공대 57)
김종록(사대 58)
박석규(간호 59)
박영규(사대 65)
박준섭(약대 68)
양대주(문리 65)
유길선(문리 73)
유세민(공대 59)
유 평(공대 68)
신달수(공대 59)
신철영(문리 64)
이광원(공대 60)
이길영(문리 59)
이규진(약대 60)
이영재(상대 58)
이정윤(음대 58)
전중희(공대 58)
조시호(문리 59)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원(의대 55)
탁순덕(사대 57)

▶W. DC.
김동호(농대 58)
김정현(치대 61)
김영일(공대 53)
구본영(공대 65)
김윤국(문리 49)
박종수(공대 74)
박진수(의대 58)
박찬형(의대 56)
변중혜(법대 58)
서문석(의대 62)
양용관(수의 62)
오인환(문리 63)
이영목(공대 59)
이장열(상대 67)
전병택(상대 65)
최준환(농대 58)
홍계인(음대 60)
홍영석(공대 58)

▶Wisconsin
장세곤(의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박정일()
정석화(대원 66)

▶Virginia
강연석(사대 58)
김기봉(공대 63)
김명철(공대 60)

김영성(상대 71)
곽근영(사대 8회)
Moon Kae S()
박경훈(상대 50)
박 엽(사대 80)
박용길(약대 56)
박윤수(문리 48)
박일영(문리 59)
박정일(농대 68)
백 순(법대 58)
변만식(사대 49)
서문석(의대 62)
서희열(의대 55)
안병협(공대 58)
유홍열(자연 74)
이영덕(사대 61)
이재우(상대 81)
이진호(공대 48)
정기순(간호 67)
정원자(농대 62)
김진만(공대 57)
최규식(상대 65)
최준호(공대 60)
한희생(수의 60)

▶Chicago
김영호(의대 71)
민영기(공대 65)
이소희(의대 61)
신석균(문리 54)
심상구(상대 63)
임현제(의대 59)

▶Georgia
김용진(문리 48)
박한식(문리 59)

▶Michigan
이성길(의대 65)

▶New Jersey
김도집(법대 57)
박성일(상대 58)

▶New York
박승화(간호 69)
이전구(농대 60)
전병삼(약대 54)
최석진(사대 58)
한영수(의대 61)

▶Ohio
최인갑(공대 57)

▶Oregon
전병택(상대 65)
▶Texas
강영민(문리 58)
박준섭(약대 68)
신달수(공대 59)
이광원(공대 60)
전중희(공대 58)

▶Wa. DC.
전병택(상대 65)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윤희성(치대 65)
이정근(사대 60)
이병희(간호 67)
임동규(미대 57)
제영혜(가정 71)
최덕순(간호 59)
최왕욱(공대 69)
한상봉(수의 67)
한정현(치대 55)

▶Chicago
김영호(의대 71)
민영기(공대 65)
이소희(의대 61)
신석균(문리 54)
심상구(상대 63)
임현제(의대 59)

▶Georgia
김용진(문리 48)
박한식(문리 59)

▶Michigan
이성길(의대 65)

▶New Jersey
김도집(법대 57)
박성일(상대 58)

▶New York
박승화(간호 69)
이전구(농대 60)
전병삼(약대 54)
최석진(사대 58)
한영수(의대 61)

▶Ohio
최인갑(공대 57)

▶Oregon
전병택(상대 65)
▶Texas
강영민(문리 58)
박준섭(약대 68)
신달수(공대 59)
이광원(공대 60)
전중희(공대 58)

▶Wa. DC.
전병택(상대 65)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월서은행 1000
나라은행 400
삼익약기 1000
자연나라 2400
Nexen Tire 1000
마포주물럭 120
한송취페 300
김광철(음대 59) 105
김병연(공대 68) 100
김일영(의대 65) 100
박문규(문리 68) 100
박윤수(문리 48) 200
오인환(문리 63) 100
이병준(상대 55) 120
이제진(의대 59) 100
최재원(수의 66) 500
김희원(수의 73) 250
Justin Kim 1000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120
강신용(사대 73) 120
강호석(상대 81) 120
권기상(대원 72) 100
김광철(음대 59) 120
김병연(공대 68) 120
김원탁(공대 65) 100
김일영(의대 65) 100
김재영(농대 62) 120
김한영(치대 66) 200
나정자(간호 70) 120
노명호(공대 61) 200
독고원(공대 65) 120
서동영(사대 60) 120
서동영(사대 60) 200
신대식(상대 60) 120
영동해(농대 74) 120
유희자(음대 68) 120
이강원(인문 76) 100
정수만(의대 66) 120
정지선(상대 59) 300
차기민(공대 85) 120
최무식(의대 66) 120
최재현(수의) 500
한상봉(수의 67) 150
한효동(공대 58) 120
*용수산(연소) 200

▶Chicago
서상현(의대 65) 120
이준우(치대 54) 120

▶Colorado
류광원(문리 58) 200

▶Georgia
이영진(공대 76) 120
최우백(공대 76) 120

▶Maryland
남옥현(경영 84) 120
이준영(치대 74) 120
이태영(법대 60) 12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Georgia
이영진(공대 76) 120
최우백(공대 76) 120

▶Maryland
남옥현(경영 84) 120
이준영(치대 74) 120
이태영(법대 60) 120

▶Minnesota
김태환(의대 58) 120

▶Nevada
김영중(치대 66) 12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 1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김재중(치대 62) 200
김정희(음대 56) 200
김종표(법대 58) 200
노명호(공대 61) 100
박우선(공대 63) 200
방석훈(농대 55) 200
백옥자(음대 71) 200
양동해(농대 74) 100
이기준(법대 54) 200
이홍표(의대 58) 200
임천빈(문리 61) 200
정원훈(상대 58) 275
지인수(상대 59) 500
하기환(공대 66) 200
한혜순(간호 70) 200

▶Chicago
구경희(의대 59) 200
김재균(공대 60) 200
김윤범(의대 54) 200
송순영(문리 52) 100
이우락(공대 48) 5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200

▶Georgia
정일화(상대 55) 500

▶Hawaii
김창원(공대) 200

▶Heartland
구명순(간호 66) 200

▶Maryland
강길중(약대 69) 200
권철수(의대 68) 200
남옥현(상대 84) 120
이태영(법대 60) 500
전정철(공대 55) 200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 56) 200
윤상래(수의 62) 200
이재선(공대 57) 20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박태호(사회 76) 500
백승원(의대 73) 200
이운순(의대 62) 200
조종현(수의 64) 200
허선행(의대 58) 200

▶New York
권영국(상대 60) 200
권영대(공대 69) 200
박찬명(약대 67) 200
윤병하(농대 80) 200
이만택(의대 52) 200
이진구(농대 60) 200
이준행(공대 48) 100
임석태(대) 200
최한용(농대 58)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225
성성모(사대 67) 200
최근영(법대 63) 120

▶Philadelphia
김선운(문리 53) 100
손재욱(가정 77) 200
이기범(의대 56) 200
이만택(의대 52) 200
정정수(의대 56) 200
주기목(수의 68) 200
최종문(공대 61) 120
원재원(공대 60) 200

▶Utah
정석화(대원 66) 200

▶Texas
김정훈(공대 46) 200
진기주(상대 60) 300

▶Virginia
강연석(사대 58) 200
박상근(법대 75) 200
박용길(약대 56) 500
이영덕(사대 61) 200

▶Washington DC.
김동호(농대 58) 200
김성일(치대 63) 200
이영목(공대 59) 20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New Jersey
연봉원(문리 61) 120
이정림(상대 64) 120
이규철(상대 68) 120
최원태(문리 67) 120

▶New York
김영중(치대 66) 120
김영희(법대 80) 120
김은경(음대 82) 120
박성남(사대 76) 120
방준제(의대 63) 120
윤병하(농대 80) 120
조대영(공대 61) 120
연봉원(문리 61) 120
한영수(의대 61) 24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Philadelphia
서종민(공대 64) 100
손재욱(가정 77) 120
최종문(공대 61) 120

▶Washington DC.
이창열(상대 67) 120

▶Michigan
정 태(의대 57) 425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325
김태환(의대 58) 200
황규원(의대 56) 200

▶Arizona
지영환(의대 59) 100

▶California
배석민(상대 71) 100

▶Georgia
정양수(의대 60) 1000

▶Heartland
구명순(간호 66) 100
김호원(치대 52) 100

▶New Jersey
박태호(사회 76) 500

▶New York
한영수(의대 61) 100

▶Maryland
김승희(법대 55) 125

▶Virginia
최준호(공대 60) 100

▶Arizona
김병수 회장 500
지영환(의대 59) 100

▶Chicago 2400

▶Georgia 600

▶New England 1000

▶Philadelphia
주기목 회장 1500

▶Washington주
윤석진 회장 600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링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 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8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6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Kim & Kang CPA's
(김경우 강경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 Prof. Corp
윤홍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 469-4584 (213) 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323-232-1700 901E 31st St. LA. CA. 9001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권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동문 업소록을 제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마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임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제정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제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 818-225-8411
(Fax) 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대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현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LinkTV Media.

김원탁(공대 65) 818-768-5494
P.O.Box 1368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요(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업가공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우주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정재훈(공대 64)

TAY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s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10874 Hope Street • P.O. Box 6034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Telephone 1 714 952 2040, Fax 1 714 952 2042
E-mail: jayco@taycoeng.com
http://www.taycoeng.com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
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
sign 김옥경(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수의대 60) 626-919-7661
1414 Azusa Ave. #B-13 W.Covina CA 91791

Glenoaks Animal Hosp.
최용준(수의대 81) 818-840-9700
2037 W.Glenoaks Bl. Glendale CA.91201

건축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동/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BBCN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앤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Hanmi Bank
행장 유재승 (213) 382-2200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진호주 치과그룹
* 진호주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흥조 치과
** 오흥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최범식 치과
최범식(치대 56).....(213)381-1112
3421 W. 8th St. #1 LA. CA.90005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213)482-5462
1127 Wilshire Bl #1500 LA.CA.90017

김 정 치과
김 정(치대 59).....(714)641-2939
204 E. Warner #104 Santa Ana. CA.92707

Lim Dental Corp.
임화식(치대 59)
1211 N. Vermont Ave. #102 LA. CA 90029

한종철 치과
한종철(치대 62) 562-860-8544
11846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ma Rowland heights CA 91748

최미혜 치과
최미혜(치대 62).....(213)386-4919
3000 W. Olympic Bl. #300 LA. CA.90006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조상우 치과
조상우(치대 64).....(310)637-6187
402 S.Long Beach Bl. Compton CA90221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식 치과

신우식(치대 59) (714) 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A.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재 치과

조광재(치대 82).....(562) 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 90602

의료/내과/전문의**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의대 76).....(213) 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 #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386-8275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제조업**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 #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철(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상대/트로피**한글트로피**

박양중(문리대 61)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강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컴퓨터/컨설팅**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정(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방의원/안약**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식품/음식점**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3622
146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순두부 213-382-6660
이태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부동산****June Lee 부동산**

이훈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강남/컨설팅****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취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등문과 동문지녀 특별할인 정자선(상대 58)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n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의/치과/한의원**박희례 한의원**

임희재(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재산관리

IPM Woa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성(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공계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필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바영리 계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훈(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영공

Driveteck,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학 / 동물병원 / 요직업

한익성(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제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8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l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설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
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teU-10 Berwyn Heights, MD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리타일러 / 주업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타일러/제과점

N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사카고**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공계업 / 제과점

로알 부동산
염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철(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e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학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제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약원 / 문화약원

RFUMS / Chicago Medical School
김윤범(의대 54) 847-578-8847
3333 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병원/수의학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MD 매릴랜드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926-9692, 8931 Shady Grove Court
Gaithersburg MD. 20877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운(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호윤 심장내과 C. A. V. A
윤호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Evis INC.
김권식(공대 61) 952-646-0238
10250 Valley View Rd. Suite 123 Eden Prairie
MN 55344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왕규현(의대 56)
420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NJ-NY 뉴욕/뉴저지**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
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또셀)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8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타일링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ons Pawnbrokers Co.
곽선철(공대 61) (973) 345-0063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현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물류업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욱(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현(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울,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9-08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닝/정리정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위사/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엔터테인먼트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 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유통/물류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 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내외과/전문업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8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역(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외과 / 내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환환 치과
조환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외과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통로 / 교육

든든한교회
김상근(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과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외과 / 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iv.com

애 오아이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명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외과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Lancas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엘림 한인교회
최근병(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외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타일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타일 / 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흥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득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외과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목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외과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외과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의사 / 동물병원

심고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외과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외사

한국 장외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치과/클리닉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 Suite #101 Vancouver WA 98684

의료/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컴퓨터/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 “내 글은 무조건 매달 한 개씩 실어라!”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글은 편집주간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과 편집위원장이 주관하시는 편집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분들이 꽤 있다(그 중 한 분으로부터는 요즈음 매일 전화로 시달리고 있다. ‘형 편집’ 같은 단어는 아예 세도 안먹히고 있다. 종종 사무실로 불쑥 찾아와 따지기도 한다). 정말 괴로운 분이다.
○... 필자(편집주간)는 ‘가짜 동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필자는 서울대 동문은 아니다. 과거 중앙일보에서 33년간 재직하던 덕분에 동창회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통화할 때

‘...동문’이라고 말하곤 해서 종종 필자도 동문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 약간 송구스러운 것이 아니다. 동문님들에 대해 뵈족한 호칭을 찾지 못해 그런 것이니 그저 해량(解諒)을 바랄 뿐이다.
○... 기고원 글은 수정을 요구하기 전 꼭 확실히, 귀중한 글을 보내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일주일 뒤, 또는 열흘 정도 뒤 다시 고쳐서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제가는 무려 다섯차례나 고쳐달라고 요구해온 적도 있었다. 기껏 교열과 문장을 바로 잡아 편집 디자인(Layout)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다. 디자인된 판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짜야 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곳이라면 백번이라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극히 사소한 어휘나 문장이라던... 도도록이던 처음부터 완전한 글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린다.***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목(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USA@g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j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윤석진(문리 64입) 425-670-9067 sock@rocket.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8입) 512-591-7739 267-992-1077 yjlee11023@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90-8717 kmjo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회(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820-8261 dalhousiedc@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명복(공) · 이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민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응)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강 사 : 김재영(농) · 박명일(농)
기금모금위원장 :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병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민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상(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원영(문) · 김중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섭(NY) · 백 순(WA, DC) · 육길원(CH) · 이철광(LA) · 정홍택(PA) · 윤상래(MA) · 김형수(NY) · 임승래(SF) · 장석정(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 서중민(공 · PA)
위원 =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응남(농 · NY) · 함은선(음 · WA)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Jayon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Kim & Hwang CPA
 김원철(농대 70) 213-383-8553
 3435 Wilshire Bl. #940 LA. CA.90010

CPA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연인을 만드세요.

매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년, 문리대)



- 소비자 인성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비용, 서비스까지 고객 만족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바타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연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합검역 : 본국 회합검역의 안정을 경험, 2인 1건으로 넘는 화남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사랑을 꿈꾸는 당신에게 드리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 한국물자의 결혼정보센터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음 ~
 ~ 전 미주 네트워크 연결 ~
 ~ 개인비밀정보보장 ~
 ~ 결혼, 재혼, 결혼상담 환영 ~

두리하나 결혼정보센터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 S.F 본사 정지선 TEL, (510)632-2121, FAX, (510)632-4121, CELL, (510)224-0752

■ L.A 본사 Donna Rom TEL, (714)848-0235, FAX, (714)842-1570, CELL, (714)310-2274

333 Hegenberger Rd., # 301, Oakland, CA 94621
 Web-site: www.2makes1.com E-mail: sf@2makes1.com

15143 Routt St., Fountain Valley, CA 92708
 E-mail: whomgho@earthlink.net

JUSTIN KIM for CONGRESS

www.justrinkimforcongress.com

JUNE 5, 2012
OPEN PRIMARY ELECTION
All Registered Voters
Eligible To Participate



Justin Kim is a second-generation American, a Democrat, and a native of the Inland Empire.

As a Congressional staffer, he saw first-hand the numerous missed opportunities to help the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strengthen the economic recovery, and address the housing and foreclosure crisis. Justin brings together an understanding of our local communit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public service working on the pressing issues affecting our country. He is running to represent California's 31st District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refocus its priorities away from ideological deadlock toward real progressive economic reform.

facebook.com/justinkimforcongress



“남가주 Redlands의 자랑스런 동문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진식 동문의 장남 Justin Kim 연방 하원의원 도전, 많은 성원을...

▶**어려웠던 시절**= 김진식 동문은 1966년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1978년에 모교 공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시골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가정형편상 고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었으나, 중 3 때 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7년 간의 학비가 보장되는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졸업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밤낮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셋째가 아까워, 아까워!” 하는 낚두리를 시도 때도 없이 중얼거려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큰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교육을 맞춰 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대학에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사범대 동문)이 빌려온 ‘학원(學園)’ 잡지에서 ‘학원 장학생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작은, 중 3학년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 고등학교 3년과 대학 4년의 학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마감은 다음 날이었고, 성적증명서와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장학생 모집에 합격**= 눈보라치던 다음 날, 형은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우체국까지 걸어 가서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식구들은 서류가 제 때에 도착하였는지 걱정하였지만, 며칠 후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며칠 후 호남선 완행 열차를 20여 시간을 타고 서울에 도착하여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날마다 합격 통지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학비는 보장되었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0~70년대 한국의 암울한 상황은 그의 일상에도 반영되어 그의 삶도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시 작품에 몰입**= 이 시기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은 ‘시혼(詩魂)’ 동인회였습니다.

그는 당시(譯詩) ‘너는 왜 울지 않니?’ (원고 분실)를 ‘현대시학(現代詩學)’에 문단 데뷔작으로 발표하려 하였으나, 원로 시인의 만류로 이를 접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의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표현이 무척이나 완곡해진 ‘초청장(招請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민과 동시 절필하고, 일상에 분주하지만 문학에 대한 향수는 마음 한 모퉁이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招請狀’을 전재(轉載)합니다.

招請狀

산등성이파다
가을이 따니다
질은 커피 내음
콩볶듯 爆竹 소리
塔時計 한낮에 멎고
祝祭는 이제 한창입
니다

冊들이 가방 속에서
午睡를 즐길 때
太初의 퇴악별엔
原色の 假裝行列
밤에는 모닥불 가에
카니발도 열리지요

50億年 놓아먹인
太陽을 길들여
다음 <프로>에서
曲藝를 시킬까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눈을 보세요.

▶**미국 이민**= 1978년 그와 아내는 미국 이민 길에 올랐습니다. 영양사인 아내는 1년 간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 취업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에게 인턴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 Loma Linda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에서 일터를 찾아야 하였는데, 그에게 직장을 제공하겠다는 데는 San Francisco에 있는 Johnson Control과 CIA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한다면 건축학이나 석유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접고 가까운 데 있는 UC Riverside에서 Computer Science와 MBA 코스를 밟았습니다.

가족으로 아내는 주립 병원 영양과장으로 30년째 근무 중이고, 딸은 Loma Linda 의대에서 MD Ph.D.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며느리는 로마린다 병원에서 재활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남 성섭**= 성섭(미국 이름 Justin)은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National Merit Scholarship의 Finalist로서 대학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Pacific Union College에서 전공을 세가지를 했는데, 진로를 빨리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과 과목인 History와 Business, 이과 과목인 Chemistry를 선택했습니다.

Justin은 어느 날 밤늦게 부친에게 전화하여, “아빠, 나 History 교수가 될래.” 한 적이 있습니다.

부친은 “이 놈아, 무슨 History야. 그 분야는 미국 사람도 미어 터지는 분야야. 이과를 해야지, 이과.”

그 날 부친에게 야단 맞은 아들은 문과 학점, 이과 학점 등 학기에 25 학점씩 이수해가면서 분주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Justin은 대학 재학 중 한 해 여름 White House 인턴 과정을 거쳤고, 부모의 권유로 지원한 의과 대학과 여덟 개의 Top Law School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대나, 법대나’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Yale Law School로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연방 법원에서 Clerkship을 거쳤고, 연방 법무부에서 세금 담당 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연방 상원에서는 탄핵 위원회 자문 변호사, 하원에서는 행정 개혁위원회 자문 변호사로 일하였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도전**= 이제 Justin은 한인 여느 부모들처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 100년여 역사상 누구도 밟지 않았던 가시밭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잘 되든 못 되든, 한인 2세로서 연방하원(남가주 31지구: Rancho Cucamonga, Fontana, San Bernardino, Redlands, Colton, Upland, Grand Terrace)에 처음 도전하는, 한국 이민사의 한 Page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하지만 선거 자금이 부족해서 꿈을 접고 정계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 양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미국 선거법상 부모도 \$5,000 이상 도와 줄 수 없고, 본인의 재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Justin은 젊고, 공직에만 근무해서, 후원금으로 선거 자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문의 후원**= 후원해 주실 동문은 www.justrinkimforcongress.com 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소는 Justin Kim for Congress, P.O. Box 670 Loma Linda CA.92354). 동문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남가주 Riverside에서 의대 78학번
구철회 배상. drkoo@sbglobal.net
Tel: 951-990-8608

*위 왼쪽 사진은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Justin Kim의 팸플렛. 오른쪽 사진은 왼쪽부터 김진식 동문과 Justin Kim, 구철회 동문이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한 장면이다.